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 하는 말을 하지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7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20일)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빠른 승려 고령화 요양시설 준비를”

조계종 승려복지회 토론회서 전문가 ‘한 목소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1년 제정된 조계종 승려복지법이 현재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조계종 승려를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와 각종 공공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세속보다 빠른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종단차원서 승려요양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조계종 총무부장)는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제36대 총무원 승려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전문가들은 복지 3대 요소인 주거 · 의료 · 소득 중 주거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승려복지제도에 주목했다.

현행제도 주거보장 全無

‘승려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스님들에게 지원된 승려복지기금 통계내역을 바탕으로 요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항목보다 적은 것을 짚었다. 이는 곧 세간의 요양시설에 대한 스님들의 부정적 시각을 방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사무국장은 “그동안 개별 스님들의 능력에 따라 사설사암 창건 내지 토굴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강구됐지만 인구 및 종교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이것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수행공간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님들에게는 단순한 주거공간 기능만이 아닌 공동체 수행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동화사 기획국장 미수 스님도 “승가 초고령화에 대한 종단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중수행처를 건립해야 한다. 안정된 대중수행처가 보장된다면 보다 많은 발심출가자가 증가하고, 포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사회를 맞는 불교계 전략’을 발표한 이진호 동국대 의료원장 역시 불교계가 △완주군 안덕마을 한의원 △힐리언스 선마을 △제주 힐링명상센터 등을 벤치마킹 해 복지와 의료 등을 갖춘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김명순 부천대 교수도 “안거 철에는 제방선원에서 대중생활을 하지만 해제가 되면 머물 곳이 없어 떠도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스님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수행공동체 공간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전문가들은 승려요양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재정 마련의 창구를 각 지역 교구로 꼽았다. 화엄사 승려복지회를 발족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교구 복지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말사 승려복지분담금 배정 △유언장 작성 및 공증제도 도입 △유산기증운동 △사설사암의 교구공찰화 △재가후원회 결성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분야 승려복지기금 중
유독 요양비 신청 비중 적어
일반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

수행공동체 성격의 시설 필요
전국 교구본사 함께 고민해야

덕문 스님은 “승려복지를 위한 직영사찰이나 특별분담사찰을 본사에서 지정해 운용하도록 하거나 승려복지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종학 사무국장도 고정적인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영 · 특별분담사찰에 대한 승려복지 특별분담금 부과와 각종 소임자 보시금 일부 회계 적립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복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시행해 법랍에 따른 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중앙종회의원 묘장 · 원묵 스님,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지현 스님,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포시지부 사무국장 청아 스님, 공방환 승려복지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승려복지제도 발전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성탄 트리’ 아래 하나 된 종교 한국 대표하는 종교인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혜와 자비의 빛 아래 하나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2월 19일 서울 조계사 앞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기념 트리등(燈)을 점등했다. 이웃종교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서 원행 스님은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강압에 힘겨운 약자들에게 평등과 용기를 북돋아 뜨거운 열정과 화합으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총장 선거 본격화… 후보 10명 거론

법인 이사회, ‘총추위’ 추천으로 선출 방식 확정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출 방안이 기존 방식인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동국대 신임 총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12월 18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제316회 이사회를 열고 제19대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선출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학내 교수들의 물밑 작업도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총장 선출은 전에 없는 ‘다자간 경쟁 구도’로 가는 모양새다.

본지 확인 결과 12월 20일 현재 출마 의사를 확정 지은 후보군은 송일호(경제학과) · 유국현(화학과) ·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 이상일(건설환경공학) · 이윤호(경찰사법대학장) · 정창근(국제통상학과) · 조의연(영어영문학부) · 허남결(불교학부) 교수(이상 가나다 순) 등 8명이다.

박명호(정치외교학전공) 교수는 출마 여부를 두루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승기(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후보 출마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일호 교수는 현재 동국대 교수불자회장으로 돈독한 신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만한 인품으로 특정한 반대 세력이 없는 점도 강점이다.

유국현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 마쳤으며, 2013년도에는 학교에서 시상하는 최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된 중진학자다.

현재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인 윤성이 교수는 학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활발한 외부활동을 펼쳐온 것이 강점이다. 제3대 한국사찰림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사찰림 활용과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상일 교수는 교무처장과 학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8명 “후보 출마할 것” 확인
12월 중 총추위 구성 예정
내년 1월에 이사회서 선출

이윤호 교수는 초대 경찰사법대학장으로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국내 최초 범죄 · 경찰분야 독립 단과대학으로 승격 · 확대를 주도하는 등 학교 개혁 의지와 추진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대외 활동 경력도 강점이다.

정창근 교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을 통한 동국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봉은사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불교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의연 교수는 경영관리실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 교내 행정에 밝으며, 대내외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강하다. 또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 불교용어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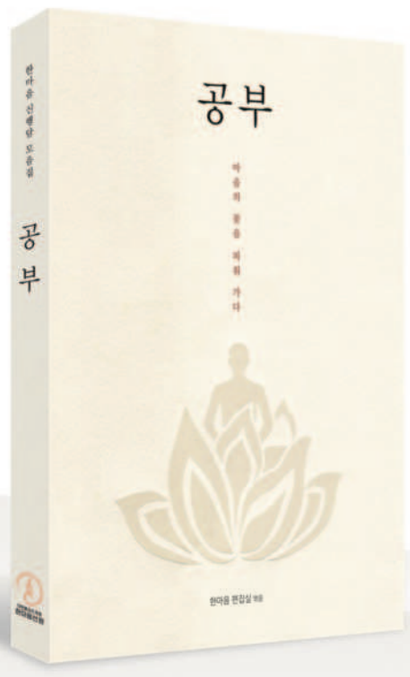
허남결 교수는 불교생명윤리 정립에 앞장 선 불자 윤리학자로 불교계에 높은 명망과 인지도를 가졌다. 보광 스님 취임 이후 비서실장을 맡아 오면서 지난 4년 동안 동국대 대내외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총추위는 교수 · 직원 · 조계종 · 동문 · 학부생 · 대학원생 대표 27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는 3~5인의 후보를 선발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총추위가 추천한 이들 후보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법인 측은 12월 말까지 총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1월 초에 1차 회의를 열어 세부 일정을 결정키로 했다. 이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신임 총장 선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 한마음 블로그『한그루의 숲』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냉온탕 오간 전통종단 '화합 염원'

2018 종단 결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년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종단들이 안정과 갈등이라는 '냉온탕'을 오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종단 수장들의 지도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계종은 갈등에서 안정으로, 태고종은 안정에서 갈등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편백운 스님(사진 왼쪽) 비판세력이 결집하며 내홍이 커진 태고종과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오른쪽) 취임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조계종. 전통종단인 두 종단은 '갈등'과 '안정'의 가치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조계종 수장 의혹으로 몸살
신임 총무원장 선출돼 안정
부채 해결해 화합한 태고종
反집행부 결집하며 내홍 커

수장 교체로 쇄신 '조계종'

2018년은 조계종 현대사에 있어서 유례없는 해였다. 지난해 당선된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친자의혹이 올해 봄 공중파의 전파를 타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등을 돌렸다. 조계종은 교권자주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의혹을 조사했지만 친자의혹만큼은 밝히지 못했다. 설정 스님은 유전자 검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작 딸로 지목된 여성의 행방이 캐나다에서 끊겨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딸로 지목된 여성의 친모가 공중파 방송 이후 미국에서 조계종에 연락을 취해 "설정 스님의 자식이 아니다"고 밝혔으나,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과거 친모와의 대화를 담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진흙탕 진실공방이 번졌다.

종단 내 갈등이 점차 거세지자 교구본사주지들을 비롯해 중앙종회까지 설정 스님의 용퇴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설정 스님은 용퇴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하면서 내홍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설정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를 받았다. 총무원장 취임 10개월 만이었다.

조계종은 이후 직무대행체제에 접어들어 총무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지난 9월 치러진 선거에서 '소통과 화합'을 천명한 원행 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 조계종은 빠르게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행 스님은 △교구중심제 △비구니 위상강화 △승려복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국 예상되는 '태고종'

태고종은 지난해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취임 후 올해 초까지 안정적인 종단 운영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과거 종단 분규사태 원인이었던 부채 약 50억 원을 해결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종단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종무원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편백운 스님 역시 이에 대응해 종법절차와 무관하게 대전종무원장을 직권면직하고, 전북교구 관할 사찰을 중앙으로 옮기면서 반대파와 대립했다.

종단 내홍이 극에 달하면서 이달에는 급기야 '길바닥 종회'까지 열렸다. 집행부가 총무원 사용을 불허하면서 총무원 사 앞에서 노상 종회가 개회한 것. 이 자리서 종회는 규정부 소환을 막고자 회기를 내년 3월 15일까지 100일간 이어갈 것을 결의하고, 집행부 특별감사 결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편백운 스님은 "종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태고종 내홍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불교 외면한 정부 문화정책

종단 외적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불교계는 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교계와 소통하지 않은 관련 부처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와 고속도로 표지판서 사찰명을 철거하는 일 등 현안을 해소하는 데 미온적인 정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다행히 법안 개정은 현재 조계종을 중심으로 정부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이에 국립공원 토지의 7%가량을 제공하는 조계종은 각종 포럼과 강연을 통해 현재 정부의 공원정책 문제점을 짚고,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 3년 2개월 만 개최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87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선출 관련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심판 청구의 건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인의 지위부존재 심판 청구의 건 △재심호계원 서황룡(서의현) 前총무원장 공권정지 3년 확정 판결 종헌·종법 위반 심판 청구의 건 등을 다뤘다.

하지만 법규위원회 회의가 2015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성원됨에 따라 임기가 끝난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 관련 청구의 건은 각하됐다. 청구인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규위는 이어 선광 스님 외 9인이 제기한 서의현 전 前총무원장 재심호계원 확정 판결 종헌·종법 위반 심판 청구의 건에 대한 청구적격심사를 차기 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해프닝으로 끝난 종단협 회장 경선

태고종·대각종, 회장 출마 의사 철회… 조계종 추대

50여 년간 사실상 조계종이 당연직처럼 회장을 맡아온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에 태고종과 대각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최초의 경선이 예상됐으나, 두 종단 모두 갑작스레 출마를 철회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1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제5차 정기회를 열고, 공석인 종단협 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에 앞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이 '균등한 기회 부여'를 이유로 사무처에 회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하면서 종단협 내부에서는 한 차례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를 앞두고 태고종은 12월 14일자로, 대각종은 이사회 당일 아침 출마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사무처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단협은 관례대로 조계종을 회장 종단으로 추대했다. 태고종과 대각종은 구체적인 출마 철회 배경을 밝히지 않았으나 협회 내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행 스님은 회장 추대 직후 "잠시(회장직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결단을 내려주신 두 종단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장으로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종단협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9억4980만원, 특별회계 예산을 2억780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비롯해 한국불교지도자 해외 성지순례, 동지나눔 문화축제 등 연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학술세미나를 종단협 차원서 개최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또 1년 넘도록 회비와 사업분담금을 체납한 법화종과 미타종에 대해 내년 2월 정기총회까지 징계를 유예하되, 이때까지 회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종단협은 산하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이석기 前통합진보당 의원을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산하단체 제명의 건을 다뤘다. 이 자리서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참회의 뜻을 밝혔으며, 종단협은 향후 산하단체 단독이 아닌 협회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불교는 '自淨其意'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이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는 과거 일곱부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불교입니다.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하라고 권고하는 이 게송은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선업을 지어 이고득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최초의 설법을 하신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4성제에 대해 의심이 남아있으면 속히 물어보라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비구들이 침묵하자 부처님은 최후의 유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멸하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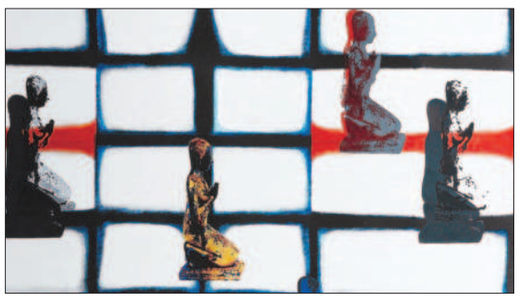
이 말씀은 방일하지 말고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일깨움입니다. 그 구체적인 수행은 계정혜 3학을 닦아 10선업을 짓고 8정도 6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악한 일 하지말고 착한 일 하라'는 말은 중국의 조과 도림(741~824) 선사가 백거이(772~846)에게 말했듯이 3살 어린이도 알지만 80노인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탐진치 3독에 젖어 10악업을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10악업의 근본은 뜻으로 짓는 '탐욕·성냄·어리석음'의 3가지 의업입니다. 의업으로 인해 몸으로 '살생·도둑질·사음'의 3가지 신업을 짓고, 입으로 '망어·양설·악구·기어'의 4가지 구업을 지어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됩니다.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려면 마음에서 행동과 말이 나오므로 먼저 의업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탐욕은 계로, 성냄은 선정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닦습니다.

계정혜 3학의 선으로 탐진치 3악을 없애 '자정기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밝은 양심이 되면 자비로 몸을 항복받아 살생이 생명사랑으로, 도둑질이 보시로, 사음이 청정범행으로 바뀝니다. 진실한 말로 입으로 짓는 4가지 구업을 다스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림·조향숙

"계정혜로 탐진치 다스려
제악막작 중선봉행 하라"
불방일 정진 '나와 이웃 행복'

이처럼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것이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입니다.

선법을 닦는 이 수행은 나와 이웃을 화목하게 합니다. 4무량심을 기반으로 한 보시와 지계는 가장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4섭법도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이타행입니다.

이렇게 볼 때 칠불통계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선법을 닦아 이웃과 함께 이고득락의 정토로 가는 깨달음의 윤리입니다.

* 인생에는 밝음과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는 밝음으로 가는길입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힘든 깊고 미묘한 법문을 만났으니 다생겁래로 지은 모든 업장을 지극한 참회로 일념돈탕제합시다. 칠불통계게를 받들어 수지하여 여래의 진실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불방일 정진합시다.

함께 인연한 독자 여러분! '날이 날마다 좋은날' 이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삼천사 회주·동국대 석좌교수〉



자비의 '연탄나눔', 한파 이길 '溫情' 되다

아름다운동행
개미마을 아이연탄맨 전달 현장
원행 스님 등 100여 봉사자 동참
승속 떠나 연탄 나르며 이야기꽃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홍제동 개미마을 80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짝 미소짓고 있다.

"여기 이것 좀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 조심히 던지세요!"

"힘드시죠? 같이 나릅시다!"

한파가 몰아친 12월, 홍제동 백사마을에는 자비의 연탄을 다르는 열기로 가득했다. 백사마을 입구 높게 쌓여있는 연탄을 스님들이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들어 전달한다. 추운 날씨에 연탄을 전달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손과 발은 시렵지만 백사마을 쪽방마다 연탄이 쌓일수록 마음은 따뜻해져갔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20일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나눔 '아이연탄맨' 행사를 진행했다.

개미마을은 총 80가구가 도시가스 혜택도 없이 한겨울을 나는 곳이다. 이들에게 연탄은 일종의 생명줄과 같다. 이날 아름다운동행 측은 이들 가구에 각각 200개씩 총 1만 6000장을 전달하고, 쌀과 라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마치 이날을 기다린 듯 중무장한 채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고무장갑과 모자 등으로 한기를 막은 스님은 여느 봉사자처럼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을 날랐다.

이런 스님들의 열정에 불자들도 동참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포교사단, 불교포럼 참가자, 동대 부속고 교사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마치 개미집처럼 골목길이 나 있다는 개미마을, 좁은 통로에 일렬로 길게 줄을 지어 선 봉사자들은 서로에게 연탄을 전달하며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눴다. 피어나는 이야기 꽃에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도 함께 피고, 추웠던 바깥 공기는 이내 따뜻해졌다.

원행 스님은 "추운 겨울을 작은 온기라도 전해주고 싶어 이렇게 직접 왔다.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개미마을 주민들을 격려했다.

또 스님은 봉사자들에게도 "힘든 종무활동 중에도 주변의 소외된 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 수행과 실천은 함께 가야 한다. 오늘 같은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펼쳐져 불교가 사회를 맑게 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현웅 봉사자는 "날씨가 추웠지만, 연탄을 배달하는 시간이 아닌 마음을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불자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탄 전달은 개미마을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올해 연탄 기부가 저조한 상황으로 개미마을이나 쪽방촌의 경우 연탄 공급이 부족하다. 또 연탄 가격과 쌀, 라면 등 식자재 가격도 인상돼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200장의 연탄이 집안에 쌓이는 것을 본 김을숙 씨는 직접 전달해주는 봉사자들의 모습에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김 씨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불교계의 도움으로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 '결실' · 대북 '청신호'…대사회 일익

2018 사회 결산
장기연대 노동장 '복직' 성과
종단 역사기념행사 참여 활발
피해자 치유위한 불교적 고민
향후 대북교류사업 진전 기대



환수금 해결 후 원행 스님을 예방한 KTX노조.


서울 광화문서 조계종 스님들이 제주4.3 영산재를 진행하는 모습.


금강산 신계사서 주지 진각 스님(왼쪽)과 만난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오른쪽).

불교계는 올 한 해 사회 분야서 분명한 존재감을 보였다. 역사적 사건의 기념추모행사를 주도하며 희생자들의 아픔을 불교적인 방식으로 보듬는 한편, 정체된 노동인권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남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해결 과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노동자와 함께한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장기간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KTX승무원 노조가 7월 해고자 전원복직을 합의한 데 이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역시 9월, 복직 합의를 타결했다. 사노위는 수년간 노동인권 투쟁을 지지하며 진력해온 사업장의 복직 소식에 함께 기쁨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불교계가 주도한 종교계 중재안으로 KTX노조의 환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불교가 노동인권 문제에 앞장서는 종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노위는 미해결 · 소규모 사업투쟁장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4.3' 역사 기억

2018년은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행보가 돋보였다. 불교계는 관련 기념추모행사에 적극 참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 불교적 치유 방식을 고민했다.

조계종은 연초 '4.3희생자유족회' 의 요청에 따라, 제주와 서울 광화문서 열린 4.3사건 추모식 일환으로 영산재를 봉행했다. 또한, 추념기간 전국 교구본사에 추모 · 위령 현수막을 게재하고 법회를 이어가는 등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제주불교계를 중심으로 불교적인 4.3기억 및 치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있었다. 관음사 4.3 둘레길 조성 계획을 세우고,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는 미처 알려지지 않은 제주불교 피해사실 등을 조명한 데서 그 의미가 있다. 현재 이뤄진 관련 피해 및 유적 조사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모위령시설 건립사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개된 남북불교 대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1년만의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계기로 그간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들어섰다. 국제 정세에 따른 화해의 훈풍이 불교계에도 불어와 남북불교 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조계종 대북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를 중심으로 스님들의 잇단 방북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2015년 10월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공동법회 이후 3년만이다.

이와 관련, 추후 불교계 사찰문화재 복원 및 북한 사찰 템플스테이 등을 위한 민간교류 필요성을 환기하며 대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진전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부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북측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만큼 실질적인 사업 준비가 구체화될지 교계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원 기자

"템플스테이, 지역 연계 필요하다"

불교문화사업단 18일 포럼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이자, 불교계의 대표 상품인 '템플스테이' 의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관광, 템플스테이와 만나다'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02년 첫 도입된 템플스테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연계, 공익담당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외국인 숙박시설 해결과 한국문화 체험 제공 차원에서 시작됐다. 현재 130여 운영사찰에 연간 20만명 이상이 체험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는 "템플스테이는 국민 스트레스, 계층간 갈등, 가족 해체 등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소외계층에 용기와 희망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발전 협력까지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 콘텐츠서 지역상품으로
통합 마케팅 등 혁신 주문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는 나눔가치 실현이란 사회 공익적 역할 확대를 통해 국민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며 "지역문화자원 연계 운영체계 강화로 국민체험 기회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선임연구원은 "통합 마케팅 체제를 통해 정보를 수요자인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공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현재 국내 · 외 홍보 및 콘텐츠 강화 단계를 거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운영사찰별 프로그램 특성화의 직접 마케팅 등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

모바일 · 명상 등 포교 신행 새 영역 개척

2018 포교 · 신행 결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의 전법 포교 현장에서의 노력은 계속 됐다. 교세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포교신도단체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키워드로 정리해본다.

모바일 | 첫 번째 키워드는 '모바일 포교'다. 인구당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이용시간 등에 있어 세계 1위인 국가 답게 포교 전법에서도 모바일화의 바람이 거셌다. 가장 먼저 모바일화의 포문을 연 곳은 포교사단이다. 포교사단은 1월 1일부터 결제 등 행정에서 SK에서 개발한 모바일 연동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상근 조직을 많이 구성할 수 없는 포교단체에서 전자결제를 통한 행정간소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조계종 포교원은 6월 전국 불교대학의 수업을 인터넷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신행불교대학을 출범시켰다. 벽지 사찰이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불교대학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11월 15일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세대별 생애주기 마음거울 108모바일 앱을 완성했다. 2012년 어린이 청소년 마음거울 108앱으로 시작한 마음거울앱은 올해 청년 마음거울앱으로 생애주기별 모바일 신행 시스템을 구성한데 이어 일선 현장 보급을 시작했다.

스포츠 | 두 번째 키워드는 '스포츠 포교'다.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불교계에서는 이 영향으로 스포츠 포교의 바람이 거셌다. 먼저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월정사 등지에서는 선수와 코치진을 대상으로 명상을 통한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올림픽 기간 불자들의 응원도 활발히 펼쳐졌다.

평창 월정사, 속초 신흥사, 양양 낙산사 등은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찰의 스포츠 포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이어졌다. 먼저 수국사 호산 스님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제15회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열었다. 호산 키즈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성장한 이상호 선수 등 사례가 나오며 스포츠 포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었다.

올림픽 후 파주 보광사가 템플민턴 대회를 개최하고, 신광사 야구단 샤프니스가 각종 사회인 야구대회를 석권하는 등 움직임이 이어졌다. 학인염불대회에서 스포츠 댄스를 선보인 정륜 스님이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군포교 |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은 군포교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다소 식상할 수 있는 군포교를 꼽은 것은 이 이유에서다.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군종교구는 6월 30일 군전법 콘텐츠 개발과 설법 현대화, 통합수계산림, 군장병 명상체험 확대, 책임 종무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군포교 행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연계해 군종병 전역 신행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전쟁 당시 입은 전시 가사를 복원하고, 군승 50년사 발간 등 역사를 다시 되짚는 노력도 기울였다.

군포교 분야는 군장병 감소 국면에서 불자 장병의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 불자장병이 실질적으로 불자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 우수 군승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군종교구 출범 후 아직 해결 못한 타종단과의 관계 등이 새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이 9월 10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한 생명살림 대법회에서 불자들이 생명살림 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처럼 2018년에는 불교포교 · 신행의 새로운 영역확대가 눈길을 끌었다.

네트워크 | 네 번째 키워드는 '네트워크'다. 군포교 분야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 계층 포교 단체들은 서로 역량을 모아 포교 활성화에 나섰다. 사상 최초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불청, 포교원이 청년신행축제를 여는가 하면, 군종교구와 대불청이 협력하여 군종병 관리에 나섰다. 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명상지도자협회와 불교명상과 청소년 인성교육을 결합한 포교활성화에 나섰다. 이처럼 각자의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10돌을 맞이한 나란다축제도 이런 의미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전국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교종립학교 학생들과 사찰 어린이, 청소년 법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종립학교와 사찰, 군부대를 대표하는 2명이 1팀으로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 불교 포교 전선에서 새로운 협력관계가 형성됨을 느낄 수 있었다.

불교명상 | 다섯 번째 키워드는 '불교명상'이다. 불교명상지도자협회는 1월 사상 최초로 제1회 명상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불교명상지도사 민간자격 자격고시를 3월 10일과 15일 첫 실시했다. 그동안 불교계가 개별적으로 불교명상이란 명칭 하에 진행해오던 명상 영역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하는 한 해였다.

이와 함께 전국선원수좌회는 7월 13일 문경 세계명상마을 1차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평창 월정사도 7월 28일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옴뷔를 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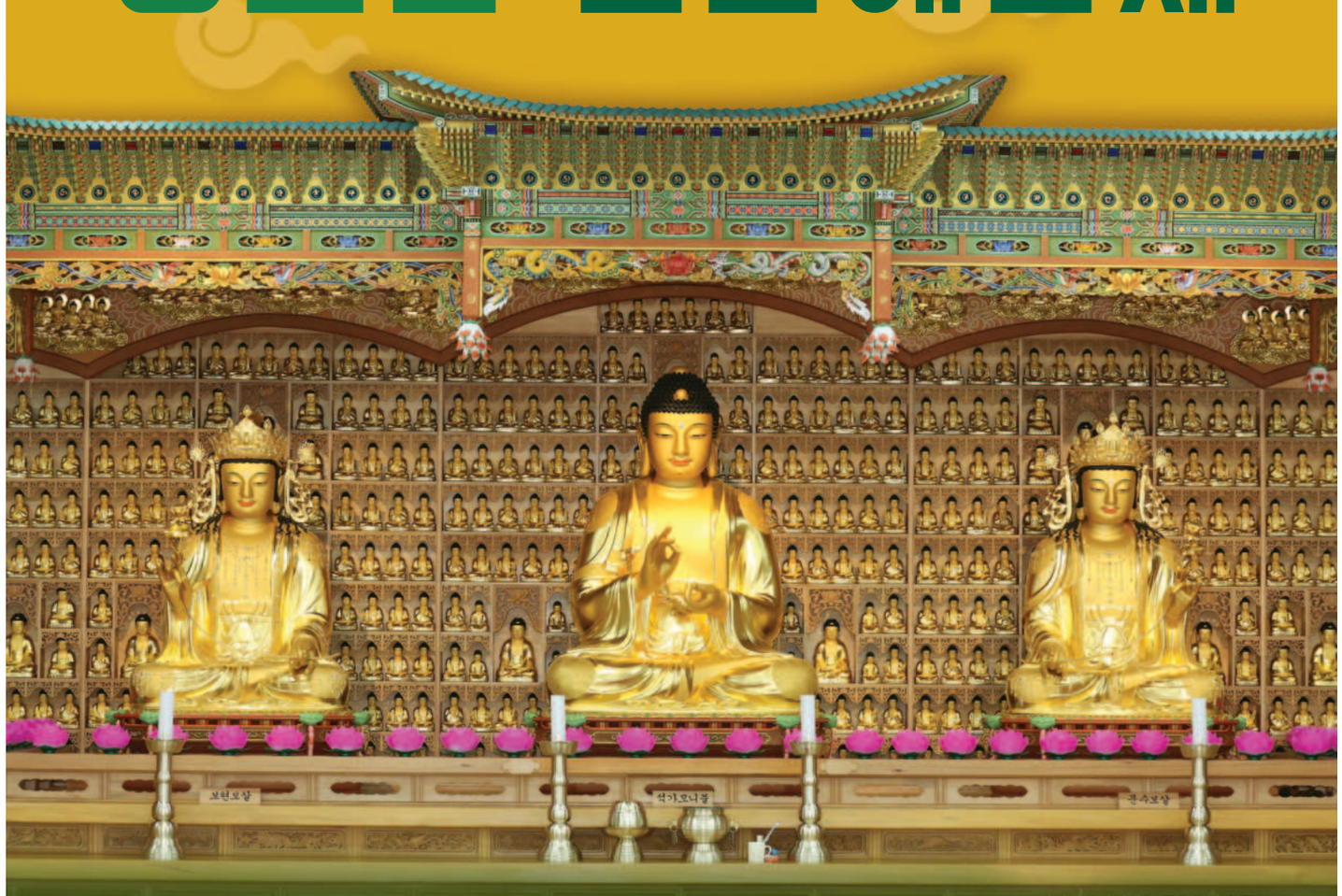
이밖에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6월 23일 한강공원서 서울시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자선행사 형식으로 걷기명상대회를,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11월 13일 파주 임진각에서 DMZ세계평화명상대전을 여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사회참여 | 여섯 번째 키워드는 '사회참여'다. 불교계 각 포교신행단체는 본연의 영역 외에도 다양한 사회참여를 활발히 펼쳤다. 불교상담개발원이 불교계를 대표해 스마트쉼운동본부를 주도적으로 창설한데 이어, 자살예방 사업도 진행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요양보호사 민간 자격 발급과 호스피스 교육도 진행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날마다좋은날을 통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시작으로 포교사단의 좋은인연의 저소득층 돕기운동 등 사회참여가 활발히 진행됐다.

불교계 포교와 신행은 이제 사찰에서의 기도로 대변되는 기복불교를 넘어, 자기성찰과 사회참여까지 이어지는 신행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인터넷, SNS 등과 접목한 새로운 포교 신행 문화가 새해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3 회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과 함께하는
성도절 문화예술제


▲ 대전비구니청림회 문화회관 삼존불

일 시 : 불기2563(2019)년 1월 13일(음 12.8)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대전비구니청림회문화회관(보문산 아쿠아리움 앞)
법 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문화공연 : 색소폰연주 이은용, 숨결무용단 이미정, 청림회 합창단
주최·주관 : (사)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 T.042.222.7090
후 원 : 제5교구 법주사, 제6교구 마곡사, 대전광역시, 대전불교사암연합회, 동학사승가대학, 전국비구니회,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 BTN, 운불련대전지역회, 대전충남포교사단, 대전시청외 5개구청 불자회, 경찰불자회







제30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불법홍포를 다짐하고 있다.

"내생에도 포교 원력 다하는 불자로"

조계종 제30회 포교대상 시상식 성료

금강선원 혜거 스님 · 이정옥 회장 대상
전법현장 원력 강조, 새해 포교 다짐

불교 포교 현장에서 활약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대상을 수여받은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과 부산 연꽃모임 이정옥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도 다음 생에도 포교 원력을 다하는 불자가 되자며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30회 포교대상은 한 해의 포교 현장에서 활동한 이들을 격려하고, 새해 전법 포교의 새로운 원력을 다지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금강경 공부 열풍을 일으킨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과 부산에서 승보공양을 비롯해 재가 수행을 이끈 이정옥 연꽃모임 회장(대원성 보살)이 대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12사람으로 시작한 경전공부가 붐을 이뤄 총 40만명이 금강선원을 다녀갔다"며 "성공을 위해 공부하지 말고, 성공 후에도 자신을 정리하고 돌아보도록 공부해야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불교 공부는 특히 이런 공부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금강선원 개원 30년을 맞아 30회 포교대상을 수상해 더욱 뜻깊다"며 "불교공부를 통해 시비를 여의고 우리 사회를 좀더 맑고 밝히는 불자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옥 회장은 "저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부처님을 믿는 불자가 된 것"이라며 "20대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는 도반들이 있다. 이제 모두 고령이 됐지만 다음 생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원력을 세워 정진하는 불자가 되도록 또 다른 원력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들에게 상이 돌아갔다.

노덕현 기자

JSA법당 공식 명칭 '유엔寺'로

군종교구 12월 23일 JSA서 현판식 봉행

그동안 JSA법당 무량수전으로 통칭됐던 JSA 내 군법당의 공식이름이 생겼다. 바로 '유엔寺'다. 군종특별교구는 최근 공식명칭을 유엔사로 정했다고 밝혔다. 영문 명칭은 'UN Buddhist Temple'이다.

유엔사는 그동안 JSA법당 무량수전으로 불렸다. 주요전각인 대웅전이 고려양식인 무량수전을 본떠 만든 데서 기인한 것이다.

유엔사는 2017년 3월 31일 무량수전과 평화의종각 불사가 성만됐다. 무량수전 내부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전사자 위패 등이 봉안돼 있다. 향후 군사찰로서의 활동을 위해 사격에 맞는 사찰 명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군종특별교구 측은 "JSA법당 내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 산하 영령과 한국군, 북한군 등을 추모하는 위패가 있고, 이에 관한 활동을 맡는 만큼 적절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월 23일 유엔사에서는 현판식이 봉행됐다. 군종특별교구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군종교구장 선묵혜자 스님을 비롯해 김병주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등 1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2018년 10대 뉴스

종단 갈등 심화에도 포교·사회 성과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있다. 본지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선정,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올해 불교계에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많은 이들에게 상처가,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준 2018년을 뒤로 새해에는 불법 홍포를 위한 새로운 기운이 움트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초유의 조계종 수장 불신임

2018년 한 해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불신임 사태였다. 총무원장 취임 294일 만에 벌어진 일로 조계종 역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설정 스님은 원로회의를 하루 앞둔 8월 21일 산중으로 돌아갔다.이후 조계종은 선거 국면을 맞았다. 선거에서 중앙종회의장을 지낸 원행 스님이 당선되면서 조계종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다. 최근에는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산하기관 전체 종무원이 처음으로 전체 워크숍을 다녀오는 등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고 있다.

산사, 세계유산 등재 '쾌거'

한국의 전통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7곳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등재 이후 최대 과제는 지속적인 보존 관리다. 특히 7곳의 산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사통합관리단'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득한 성자' 무산 대종사 원적

많은 스님과 명망있는 재가불자들이 세간의 연을 다했지만, 유독 안타까웠던 것은 한국 최고의 시조시인이자 무애도인이었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원적이었다. 대종사는 지난 5월 26일 법랍 62년, 세수 87세로 원적에 들었다. 영결식은 5월 30일 오전 10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으며, 건봉사 연화대서 진행됐다.

무산 대종사는 마지막까지 신흥사 조실이자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조실을 맡으며 후학 양성에 앞장서왔으며, 원로회의 의원으로서 종단 발전에 매진했다.

항상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있었던 무산 대종사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렸다.

미륵사지 석탑 20년만에 복원 완료

일제강점기 최악의 문화재 수리 피해 사례로 손꼽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 간의 해체 복원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0일 현장 공개됐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는 1998년 해체 보수가 결정 이후, 20년간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작불사였다. 이는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기간 수리를 진행한 사례로 기록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12월까지 가설시설 철거 및 주변 정비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된다. 공식적인 준공식은 내년 3월 12일 열린다.

불교명상 열풍 확산 대사회 기여도 높여

올 한 해는 불교명상 대중화의 원년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불교명상이 각광을 받았다. 불교명상지도자협회는 1월 사상 최초로 제1회 명상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불교명상지도사 민간자격 자격고시를 3월 10일과 15일 첫 실시했다. 이면에는 불교명상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선원수좌회가 문경 세계명상마을 불사 착공을 한데 이어 평창 월정사도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옴뷔를 개원했다. 또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6월 걷기명상대회, 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11월 DMZ 세계평화명상대전을 여는 등 활발한 불교명상의 사회기여도 이어졌다.

군·비구니계 50주년 내외 역량 강화 다짐

올해는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은 해로 군포교 현장에서의 혁신이 시도됐다. 베트남전 군승 파송으로 시작된 군포교 역사는 50년을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를 맞았다. 조계종 군종교구는 6월 30일 군전법 콘텐츠 개발과 설법 현대화, 통합수계산림, 군장병 명상체험 확대, 책임 종무원제 도입 등 군포교 행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군승파송 50주년에 이어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도 창립 50주년이라는 경사를 맞았다. 1968년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로 시작된 전국비구니회는 6천여 비구니의 구심점 역할을 맡았으며, 향후 비구니의 대사회활동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종단 첫 불교성전 편찬 본격화

조계종이 사상 첫 종단 표준 '불교성전'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경율론 삼장을 기초로 불교 이해를 돕고 신행의 토대가 될 불교성전은 그동안 13종 16권이 발간됐지만 종단 표준본은 없었다. 조계종은 관련예산 1억8300만원을 배정한데 이어 최근 총무원장을 당연직 편찬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령도 공포했다. 편찬위원회 산하에는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와 집필, 출판과 배포 등 실무를 수행하는 기획위원회를 뒀다. 종단 첫 불교성전 편찬은 새해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패럴림픽 축제 종교편향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른 올해, 뒤이어 열린 패럴림픽 관련 페스티벌에 종교편향 명칭이 사용되며 불교계 공분을 샀다.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3월의 크리스마스'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

본지는 즉시 취재에 착수, 해당 명칭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부족한 종교인권 감수성 등을 보도했다. 이어 강원불교계 비판 성명과 조계종의 관계부처 방문 등이 잇따르면서 결국 최종 행사명칭이 '3월의 스노우 페스티벌'로 정정됐다. 이 같은 성과가 인정돼 본지 기사는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교기자상 취재보도부문에 선정됐다.

KTX·쌍차 해결 뒤엔 '불교'가

올해는 2006년 코레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12년여 만에 극적으로 일터에 복귀하게 됐다. 4,526일간 이어진 갈등이 해결되기 까지엔 불교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불교계는 2006년 6월 7일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가 '제4회 박종철인권상'을 KTX 해고승무원들에게 수여한 때부터 KTX 갈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쟁현장에서 함께했다. 각종 소송 관련 중재 역할을 도맡은 불교계에 찬사가 쏟아졌다. KTX 여승무원 복직에 이어 9월 쌍용차 노조의 10여년만의 사태해결을 이루는 쾌거로도 이어졌다.

조계종복지재단 횡령 파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내부감사 과정서 회계담당 직원이 4년여 동안 6억 원 이상 횡령한 사실이 지난 7월 드러났다. 전국 산하 190여개 복지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불교계 대표 재단서 벌어진 일인 만큼 불교복지 신뢰도에 큰 타격이 발생했다.

이후 조계종은 횡령 금액을 회수하는 한편, 외부 전문회계를 통한 감사를 진행했다. 현재 당사자 징계처리 및 사직만 이뤄진 상황이며 내년초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후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대체의학인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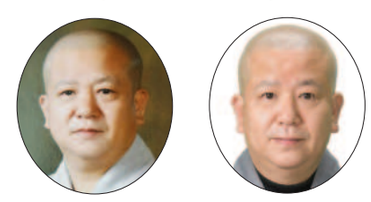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대원 전법선사

“깨달음엔 승속 없다… 절실한 마음내라”

주제 : 깨달음을 위한 바른 수행법

농선 대원선사(弄禪 大圓禪師)



대원 선사는… 1953년 18세에 깨달음에 뜻을 두고 구도에 올라 이듬해 해인사서 출가했다. 1962년 대구 동화사서 전강선사의 인가를 받았다. 현재 성불사 정맥선원을 본사로 서울 · 부산 · 광주 등 전국 6개 선원의 불사와 교화, 역경, 저술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바로보인 선문염송〉〈바로보인 전등록〉 등이 있다.

올해를 보내며 불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살면 됩니다. 우리 불교는 초지일관 바른 것입니다. 불교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바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바르게 사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안목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깨달아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불법이란
–몸이 내가 아닌 마음이 내가 된 삶

불법을 한 마디로 말하면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되는 공부’ 입니다.

우리 몸은 사람이 태양 아래를 걸을 때 나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그림자를 나로 삼기 때문에 생사와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너는 오늘의 내가 아닌데, 오늘의 나는 어제의 너였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중생이다’ 란 의미로, 깨닫고 나니 바로 안팎 없는 자체여서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 두 마음이 똑같다는 말도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승속을 불문하고 내가 나를 알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과

둘째, 중생을 이끌어 마음바탕에 사무쳐 들게 하여 마음자리를 짚어줄 수 있는 일체종지를 이룬 선지식과

셋째, 줄탁동기(啐啄同機)와 같이 두 인연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른 스승이란
–일체종지를 이룬 선지식

‘선방은 있어도 수좌들이 없다’ 는 말이 있는데 실상은 수좌들이 있어도 그들을 이끌만한 눈 밝은 선지식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 보림(保任, 깨달음을 얻은 후에 업을 닦고 지혜덕상을 다 갖춰가는 수행)을 해서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이룬 선지식이어야 비로소 수행자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체종지를 이룬 경지란 어떤 것일까요? 불법의 진리나 어떤 공안이라 할지라도 누가 물으면, 질문한 사람의 두 입술이 닫히기 전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내기
–내가 나를 알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

옛 선지식들께서 ‘깨달음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고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가장 어려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덜 갖추고, 더 갖춘 문제가 아니라 승속과 수행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깨달음을 향한 절실한 마음만 내십시오. 일체종지를 이룬 선지식을 만나 지도를 받는다면 불교 공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간단한 것입니다.

“마음이 ‘나’ 되는 공부가 佛法”
깨달음 향한 절실한 마음내기와
참스승 만나야 ‘바른 수행’ 가능

‘내’가 된 삶을 사는 수행자가
진정한 불보살 삶을 사는 불자

바른 깨달음이란
–꿈이 꿈인줄 알면 삼라만상이 모두 마음의 능력

법계의 ‘법’ 은 개개인의 자성을 말하고, ‘계’ 는 밖으로 펼쳐져있는 삼천 대천세계를 말합니다. 깨달아 사무친 그 순간, 안도 없고 밖도 없는 그자리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지를 ‘법계화’ 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나고 죽음이 당초에 없습니다.

이를 꿈에 비유해보겠습니다. 꿈보다 더한 법문이 없습니다.

꿈꿔본 적 있습니까? 꿈은 누가 만들어놓고 내가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쓸 때는 언제입니까? 잘 때인가요? 깨어있을 때인가요? 보통은 깨어있을 때 내 마음을 제대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깨어있을 때가 아닌 잠잘 때 그런 능력이 나올까요?

방 안에서 잠을 자며 꿈을 꿀 때 잠자는 사람이 꿈속에서 아무리 방 안을 활보하고 다녀도 방 안에 있는 이들과 잠자는 사람이 서로 전혀 볼 수도 없고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 몸에서도 업을 달리하면 다른 세계를 이룹니다. 또한 죽은 지 얼마 안 돼 아직 몸을 받지 않은 귀신들이 이 공간에 무수히 있다 해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서로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편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각각 업을 익혀서 각각 과보를 받고 있는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바는 상대에 의해서 반드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세계는 나 혼자 내 여래장에 심어진 것을 꺼내어 연출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마음의 업이 더욱 깊어질지언정 과보는 받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거의 송장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송장이 다 됐을 때 꿈꿀 때와 같은 재주가 나오는 이유는 몸뚱이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를 벗어난 체성일 때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생의 내가 완전히 죽어야, 현상계가 완전히 없어져야 참나가 드러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엊저녁 꿈을 깨고 보니 꿈속의 모든 상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해 몸뚱이를 나로 알 때는 현상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인식하다가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불성의 익힌 바에 의해서 나툰 마음들의 빛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꿈속 모든 현상이 내 밖의 경계가 아니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성에서 발하는 청정광명이며, 자성 밖의 것이 아니어서 자성에 본래 갖추어진 지혜의 능력에 의해 그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라만상, 만덕(萬德)이라는 것이 엊저녁 몽중의 현상과 같아 자성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무정인 나무의 몸으로도 나투고 유정인 인간의 몸으로도 나투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꿈에 나툰 것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선정 중에 우리가 빛을 나투었을 때 그 빛이 본 체성과 나뉨이 없는 것처럼 ‘안팎 없는’ 자체일 뿐입니다.

업에 빠져 굳어져서 업상을 이루고 있을 뿐, 업상만 벗으면 그대로 극정에서 빛을 나툰 것과 같습니다.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없는 것도 아니어서 만덕은 밖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안에서 끌어내어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꿈이 꿈인 줄 알면 꿈속의 현상이 자성 밖으로 나온 것도,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다만 스스로의 능력을 발했을 뿐인 것처럼 삼라만상과 만덕 역시 밖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기에 거두어 들여서는 거둬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는 순간 바로 이 몸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몸뚱이가 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는 절대 그런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깨달아서 보림을 마치면 꿈꿀 때처럼 그런 세상을 능히 나툴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세계, 즉 부처님의 누림의 세계를 드러낸 경전입니다. 중생이 수행해서 궁극에 이를 자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듣는 곳을 관조하는 공부를 일상생활 가운데 지극하게 지어가다 보면, 일체 상이랄 것 없이 허공처럼 텅 비어 온통 마음뿐일 것이니 이것이 본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결정신을 내려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불보살의 삶이며 진실한 불자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경계해야할 것은 마음 바탕의 실증 없는 공에 떨어져 안주하는 것이니 반드시 인가받은 선사를 참문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정법을 가섭존자로부터 육조대사로 전수되고 육조대사로부터 전해 내려와 수덕사 경허, 만공 선사를 거쳐 전강 선사로 이어진 법과 용성 선사로부터 이어진 강맥을 전강받아 선교양종의 정맥을 꽃피우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도량입니다.

금생에 깨닫기를 간절히 서원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 · 방선을 허락할 것이니 금생에 꼭 대오견성해서 생사해탈하시기 바랍니다.

청정본자연(淸淨本自然) - 청정해서 본래 스스로 이러함이라
막론거래상(莫論去來相) - 오고가는 상을 논하지 마라
삼삼번성구(三三飜成九) - 삼삼은 뒤집어도 아홉을 이루느니라
회마(會麽) - 알겠는가?
악(喝)- 악!

– 동안거 결제 법어 중에서

2018년 무술년이 가고 2019년 기해년이 온다. 한 해를 보내는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가야 할까. 국제정맥선원 지도법의 특징은 대원선사와 독대해 직접 깨달음을 지도한다는 점이다. 문재현 선사는 12월 7일 선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바른 불교 공부법’ 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스님은 “깨달음을 향한 사무친 발심이 있고, 눈 뜬 선지식에게 참문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환지본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인도 ·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I 2019년 3월 8일 출발
225 만원

창립30주년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출발일 I 2019년 4월~10월 (매월출발)
239 만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 9일
출발일 I 2019년 3월~4월 중 출발
259 만원~

· 포함사항 - [노옵션] 왕복항공료(유루세, 공항세 포함),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관광지 입장료, 팁경비 포함
· 불포함사항 - 개인적 성격의 지출, 짐 포터·룸메이드 팁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모집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Since.1989 실크로드여행사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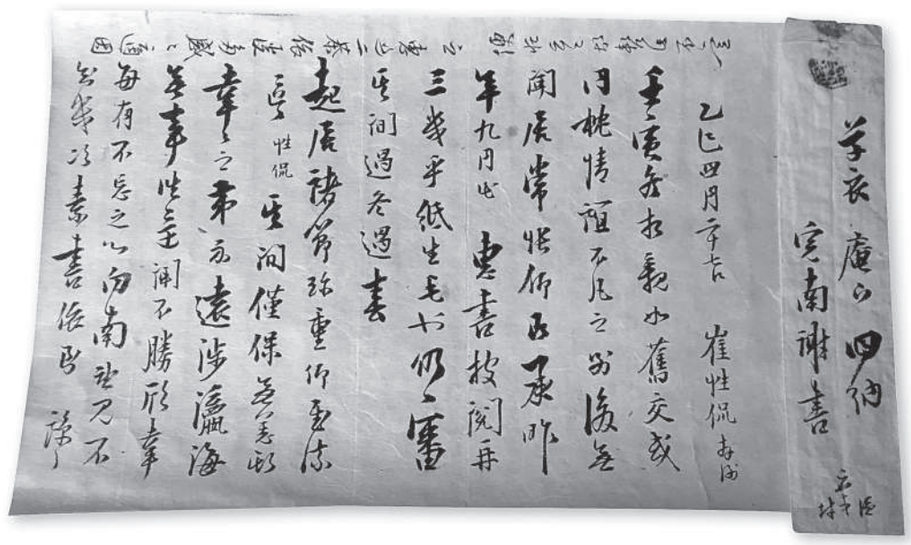
행간마다 초의 그리는 절실함 담다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㉔ 정용익, 최성간의 편지





전라지역 유생이었던 정용익의 서간(사진 왼쪽)과 최성간의 서간(사진 오른쪽). 행간마다 초의 선사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담겨있다.

해남에 거주했던 선비로 추정되는 학천산인(學泉散人) 정용익(鄭龍翊)은 초의와 교유했던 인물이다. 그가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 해는 1845년 4월이다. 초의가 보낸 차를 받고 이에 대한 고마움과 안부를 편지에 담았다. 1844년 9월, 초의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고 하니 이들은 이미 알고 지낸 사이인 셈이다.

이번엔 두 편의 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해남에 거주한 정용익의 편지를 살펴본 후에 같은 해 보낸 최성간의 편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학천산인 정용익의 편지를 살펴보자. 이 편지의 크기는 35.2×23cm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래도록 초의 스님의 법을 만나지 못해 비루하고 인색함이 그 가운데서 싹이 텄습니다.

초여름인데 마음 쏠림이 더욱 간절합니다. 바로 작년 9월에 보낸 편지를 받고 삼가 스님의 수행이 맑고 정결하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미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쁩니다. 또한 선 수행에 대해 구전으로, 대강의 정도를 살펴보니 더욱 저는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차품을 보내주셔서 이 차로, 병든 위를 깨우니 그 가운데에서 감명이 깊습니다. 저는 세상일 속에서 지내는 동안 (속진을) 씻을 계획이 없으니 거듭 묵은 병으로 늘 고통스러움을 어찌해야 할까요. 다만 돌아가는 인편으로 인해 잠시 이에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법식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1845년 4월 그믐날. 정용익 배상. 부채 한 자루. 학천산인

久不見草衣師範 鄙吝萌于中 麥凉槐薰 詹漆政切 卽拜承昨年菊月出惠翰 謹審法履淸淨 旣慰且喜 且於來禪口傳 槪探多少 尤庸欣豁 惠饋茶品 用醒病胃 深感于中 記末 俗累彌中 洗滌無計 重以宿疾常苦 奈何 只因便歸 暫此替伸 餘不備狀式

乙巳 四月 晦日 鄭龍翊 拜上 扇子壹柄

초의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탓에 그의 마음이 비루해지고 인색해졌다는 것이다. 수행자의 삶과 속세의 삶은 그 목표가 다르다. 그러므로 청량한 수행자의 바람은 그에게 속진을 씻어내는 솔바람 소리 같은 것이리라.

그가 편지를 보낸 시점을 짐작할 수 있는 키워드는 맥량(麥凉)과 괴훈(槐薰)이다. 맥량(麥凉)은 보리나 밀이 익을 무렵을 말하며 괴훈(槐薰)은 홰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는 여름을 말하니 이 편지는 초여름 무렵에 보낸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 편지는 음력 4월 그믐날에 쓴 것으로, 당시 그는 초의가 보낸 차를 받았다. 음력 4월 그믐날을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5월 말에서 6월 초순 즈음이다. 따라서 1845년경 초의는 입하(立夏, 양력 5월 5일)를 전후해 차를 만들었고,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그와 교유했던 선비들에게 차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1837년 여름에 저술한 그의 '동다송(東茶頌)'에도 입하 후에 차를 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다서에 이르기를 차를 따는 시기는 차를 따는 적기에 맞춰 따는 것이 중요하다. (차를 따는 시기가)너무 이르면 향이 온전하지 않고 너무 늦으면 차의 색향기미(色香氣味)가 흩어진다. 곡우 전 5일이 가장 좋고 후 5일이 그 다음이며 후 5일이 또 그 다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차를 경험해 보니 곡우 전후는 너무 빠르니 마땅히 입하를 지난 후에 따는 것이 그때(차 따는 시점)가 알맞다.

茶書云 採茶之候貴及時 太早則香不全 遲則神散 以穀雨前五日 爲上 後五日 次之 後五日又次之 然 驗之東茶 穀雨前後太早 當以立夏後爲及其時也

윗글에서 그가 말한 다서(茶書)는 장원(張源)의 〈다록(茶錄)〉이라 여겨진다. 한국과 중국의 기후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곡우 전후에 차를 따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차의 향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물론 초의가 살았던 조선 후기와 지금의 기온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차의 산지가 깊은 산 속이라면 초의가 말한 것처럼 입하 전후에 차를 따는 것이 좋다. 보성, 지리산 일원, 제주에서는 곡우 전에 차를 따는 것이 좋은 지역도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차를 따는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아무튼 정용익의 편지는 초의차의 채다(採茶) 시점이 입하 후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라 유생 정용익 · 최성간 서간
"오래 못 봐 마음이 비루해져"
초의 선사 향한 존경심 느껴져

교류 시점 · 절기 등 상황 확인돼
옛 선인의 서간, 미세사의 보고

같은 해 4월 27일에 최성간(崔性侃)이 보낸 편지를 소개한다. 최성간은 순조 31년(1831) 식년시에 합격한 최성선(崔性善 1808~?)의 아우이다. 그가 "1842년 겨울, 서로 친함이 마치 오랫동안 사귄 것 같아 함께 자며 나눈 정의(情誼)가 평범하지 않은 듯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초의를 만난 것은 대략 1842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편지 겉봉에 금남사서(完南謝書)라고 썼다. 금남은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다. 따라서 최성간은 전라도 출신 유생으로, 차를 즐긴 인물로 추정된다. 편지의 크기는 39×24.2cm이다. 이 편지에도 초의가 그에게 차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1842년 겨울, 서로 친함이 마치 오랫동안 사귄 것 같아 함께 자며 나눈 정의(情誼)가 평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에 소식이 없으니 언제나 서글피 우러러봅니다. 바로 작년 9월 보낸 편지를 받고 두 번 세 번 펴보니 거의 종이에서 털이 폈습니다. 이어 그 사이를 살펴보니 지난 겨울과 지난 봄에 기거하시는 모든 절차가 진중하시다니 구구히 위로됩니다. 저는 그 사이 근근이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는 다행스럽고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멀리 큰 바다(제주도)를 건너가신다고 하셨는데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쪽을 바라본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편지가 도착했으니 안심이 되며 차 2포를 보내주셔서 감동이 컸습니다. 마침 인편이 바쁘다고 하니 잠시 이 말씀만 드립니다.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1845년 4월 27일 최성간 배사

壬寅冬相親如舊交 或同枕情誼不凡 而別後無聞 居常悵仰 卽承昨年九月出惠書 披閱再三 幾乎紙生毛也 仍審其間 過冬過春 起居諸節珍重 仰慰漆區區 性侃 其間僅保無恙 斯幸斯幸 而第示遠涉瀛海 無事往還 聞不勝欣幸 每有不忘之心 向南望見 不知幾次 素書依到 諒之 而惠送二茶 依受 多感多感 適因便忙云云 故暫此 不宣 乙巳四月 二十七日 崔性侃 拜謝

1845년경 최성간은 완남(完南)에 거주했다. 그의 아우는 1831년 식년시에 합격했다고 한다. 식년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로, 대비과라고도 하는데, 〈주례(周禮)〉에 "3년은 대비로, 이 해에 그 덕행과 도예(道藝)를 살펴서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관리로 등용한다."라고 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아무튼 이 편지에 "1842년 겨울, 서로 친함이 마치 오랫동안 사귄 것 같아 함께 자며 나눈 정의가 평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가 초의를 만난 시점은 대략 1842년경이라 여겨진다.

한편, 그는 1842년 겨울에 초의를 만난 후,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기에 "이별 후에 소식이 없으니 언제나 서글피 우러러 봅니다"라고 했으리라. 초의를 대하는 그의 존경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다가 초의 편지가 그에게 보내진 것은 1844년 9월이었다. 그가 "작년 9월 보낸 편지를 받고 두 번 세 번 펴보니 거의 종이에서 털이 폈습니다. 이어 그 사이를 살펴보니 지난 겨울과 지난 봄에 기거하시는 모든 절차가 진중하시다니 구구히 위로됩니다"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아무튼 오랜 기다림 끝에 교유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편지란 개개인이 주고받은 정보이다. 단순한 문안 편지에서도 이들의 교유 시점이나 상황, 절기, 주고받았던 물품, 우정의 정도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편지는 개인이든, 시대든 다양한 정보가 담긴 미세사의 보고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편지는 초의가 추사의 유배지, 제주도를 찾아간 시점을 확인할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가 "멀리 큰 바다(제주도)를 건너가신다고 하셨는데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쪽을 바라본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렇다. 이 무렵 제주를 찾아 간 초의를 그리며 남쪽을 바라봤다는 그의 우정은 만난 횟수가 아니라 어떤 이상을 공유했는지가 중요했는지도 모른다. 초의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던 그가 초의를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행간 사이사이에 숨겨 두었다.

한편, 1845년 무렵 초의는 제주에서 돌아와 일지암에 머물며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실제 초의가 제주를 찾아간 때는 1843년경이며 제주에 머문 기간은 6개월 정도였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편지가 도착했으니 안심이 되며 차 2포를 보내주셔서 감동이 컸습니다"라고 한 점이다. 평생 수많은 차 보시로 속세의 오욕에 얼룩진 이들을 위로했던 초의의 차 공덕은 언제나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든 정표라고 하겠다. 〈끝〉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천고당 태륭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행정지원 ◆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해넘이 새해맞이
282회 깨달은 삼천배



표정 · 자세 · 동작 · 호흡 · 알아차림 · 공경 찬탄 감사 · 몸숨맘 지켜봄을
천만배의 지혜로 인체 공학적,뇌과학,의학적 에너지로 완성된 절수행

⦿ 숨을 손끝 발끝까지 완벽하게 온몸으로 쉰다.
⦿ 숨은 고요하나 얕으면 냉병 온다.
⦿ 숨을 가슴 어깨로 들이마시며 입으로 숨쉬면 상기 된다.
⦿ 합장 한 손가락과 위치 정말 중요하다.
⦿ 발가락이 쭉쭉 펴져야 생생해지고 스트레스 100% 해소 된다.
⦿ 오금 무릎에 입력 된 무서움,두려움,공포,놀람을 치유 안하면 무릎에 이상 온다.
⦿ 식식거리며 정신없이 미친 듯이 절하면 혈압 올라가고 심장은 괴로워하며 악몽을 꾸게 된다.
⦿ 입꼬리 올리고 미간 쫙 펴고 부처님처럼 아름답게 미소지으며 절해야 참 절
⦿ 3천배 용맹정진, 참선, 등산, 운동을 많이 하고 뜨거운 탕, 샤워하면 상처 받은 세포 바로 죽는다.

◎ 일시 : 12월 31일 월요일 저녁 9시 ~ 다음날 아침 6시
◎ 장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절수행 교육 : 초보자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 3천배의 기쁨과 희열로 와불산, 가지산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따뜻한 법당 안에서 새해맞이를 하고 참 맛난 떡국 공양을 합니다.
※ 청견스님의 '소참법문 CD+佛자 붓글씨+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선물 드림.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재)깨달은 공동체 DKSV 법왕정사
다르마 킹 칼리지&한불 몸 숨 맘 사띠 연구소





사진 왼쪽부터 현재 도난된 영월 보덕사의 불화 영산회상도, 지장시왕도, 신중도. 이들 불화 중에는 화기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들을 찾아야 잃어버린 사찰 역사 복원이 가능하다.

사찰 역사 복원위해 도난 불화 환수를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㉔ 영월 보덕사의 도난 성보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영월은 남서쪽으로는 제천 · 단양과 접하여 충청북도와 남동쪽으로는 영주 · 봉화와 맞닿아 경상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다. 군의 동쪽은 태백산맥, 서북쪽은 차령산맥, 남쪽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뻗어 있어 고산지대와 영월읍을 중심으로 하는 500m 이하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의 청령포는 단종이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당한 곳이라 1698년에 노산군을 단종으로, 능을 장릉으로 추존함에 따라 영월군도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사찰은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法興寺), 보덕사(報德寺), 금몽암(禁夢庵)이 있다.

이 가운데 영월을 대표하는 사찰은 영월읍 발본산 자락에 위치한 보덕사이다. 이 사찰은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月精寺)의 말사로, 단종의 극락왕생을 기원한 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보덕사는 668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지덕사(旨德寺)라 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714년 혜각 선사가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1161년에 운허 스님이 중창하고, 이후 설허 선사와 원경 국사가 극락보전 · 염불당 · 고법당 · 침운루 등을 중건하였다. 1457년에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돼 영월로 유배되자 사찰 이름을 노릉사(魯陵寺)로 개칭하였다. 1705년에 한의 스님과 천밀 스님이 대금당(大金堂)을 건립하고, 1726년 6월에 단종 장릉(莊陵)의 원찰(願刹)로 지정되면서 태백산 보덕사로 고쳐 불렀다.

1854년에 화재로 극락보전, 종각, 내원암 등이 소실되어 1868년에 응봉 스님과 보해 스님이 중건하였다. 이 사찰은 사전(寺田)이 1,000석에 이르렀고, 승려가 100명 이상 거주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당우는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대현전 · 목우실 · 산신각 · 심검당 · 칠성각 · 사성각 등이다.

20세기 전반 보덕사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는 1920년을 전후해서 작성된 재산대장(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1932년 1월 22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귀중품 대장이 남아있다. 우선 1920년 전후에 작성된 재산대장에 의하면 보덕사에 봉안된 성보문화재는 64건 283점으로, 불상 14건 41점, 불화 13건 19점, 나머지 공예와 경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0년대 재산대장에는 성보물들이 극락전 · 산영각 · 칠성전 · 사성전 · 대향각 · 상상보로 나뉘어 적혀 있어 운영되었던 전각의 현황을 알 수 있다.

현재 보덕사에서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으로 도난 신고를 한 문화재는 1786년에 조성된 지장시왕도와 신중도(1990년 8월 6일 도난), 영산회상도(1992년 2월 15일 도난)이다.(〈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조계종, 2016)

보덕사에서 도난된 영산회상도는 중심 전각인 극락전에 후불도로 걸려 있던 불화로, 재산대장에 영산법회탱(靈山法會幀)으로 적혀 있다. 이 불화는 세로 305cm · 가로 286cm, 화면 중앙에 자리한 석가불은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오른손을 항마촉지인하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왼손을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걸치지 않은 상태라 맨살이 노출된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있다. 화면 하단에 보살상과 사천왕을, 중단에 좌우에 보살상을, 상단에 불제자인 아라한과 신중들을 꽉 차게 배치했다. 영산회상도는 세련된 필치로 각 존상의 얼굴과 신체, 문양 등을 표현하고,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18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불화의 설채법을 따르고 있다.

지장시왕도는 세로 200cm, 가로 198cm로, 재산대장에 명부시왕탱 또는 시왕탱으로 언급되어 극락보전의 중단에 모셨던 불화로 추정된다. 화면 중앙에 지장보살은 높은 대좌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비구형의 민머리에 양손을 가슴 쪽으로 든 특이한 자세를 하고 있다. 지장보살을 향하여 서 있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은 합장을 하고, 시왕들은 홀이나 경전을 들고 원유관, 책관 등을 쓰고 있다. 나머지 화면에는 동자, 판관, 사자, 옥졸 등의 명부 권속이 빠짐없이 그려져 있고, 상단에 6대 보살을 그린 특이한 배치를 하였다. 설채법은 적색과 녹색 등이 주조색을 이루고, 백색이나 청색 등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극락전 영산회상도와 동시에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장시왕도와 같이 도난당한 신중도는 세로 120cm, 가로 160cm의 직사각형 화면에 채색을 한 불화로, 화면 상단의 병풍을 배경으로 향우측에 합장을 한 제석천(帝釋天)을 중심으로 권속과 위태천(韋馱天)을 큼직하게 그린 단순한 구도이다. 제석천과 위태천의 둥글고 풍만한 인상에 비해 권속들의 개성 있는 인물 표현이 대조적이다. 화면의 설채법(設彩法)는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청색을 보조색으로 활용하여 영산회상도, 지장시왕도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덕사는 사적기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찰의 연혁을 알 수 없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이나 불화에 적힌 화기 등은 사찰의 불사(佛事)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도난당한 불화는 구체적인 화기 내용조차 알 수 없다. 따라서 도난당한 불화를 사찰로 회수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찰의 역사를 복원할 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끝〉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 제1510호 7-8면 (1932년 1월 22일)				비고 (현존 유무)
명칭	품질	수량	명칭	수량	품질	형태	
아미타삼존불	목체금불	3위	아미타불	3	목제도금	좌상	현존
지장보살	목체금불	1위	지장보살	1	토제도금	좌상	
석가삼존불	목체금불	3위	석가삼존불	3	목제도금	좌상	현존
관세음보살	목제도금	1위	관세음보살	1	목제도금	좌상	
아라한존자	목상	16위	나한	16	목제도채	좌상	14구 현존
아라시자	목상	7위	아라시자	7	목제도채	좌상	5구 현존
제석천왕, 대범천왕	목상	2위	제석천왕, 대범천왕	2	목제도채	좌상	현존
사자	목상	4위	사자	4	목제도채	입상	3구 현존
거영신	목상	2위	거영신	2	목제도채	입상	현존
치성광불	목체금불	1위	약사여래	1	목제도금	좌상	
비로자나불	목체금불	1위					
영산법회탱		1축	영산법회탱	1	지제	괘도	
천왕탱		4축	천왕탱	4	지제	괘도	
명부시왕탱, 감로탱 영산탱, 신중탱 보현왕탱, 산신탱 나반존자탱		12축	시왕탱, 감로탱 신중탱, 영산탱 후불탱, 신중탱 칠성탱, 산신탱 독성탱	9	지제	괘도	후불도, 칠성도, 산신도 현존
영산탱		2축					
제성군탱		1축					

단종 장릉 원찰 태백산 보덕사
승려 100명 주석했던 영월 대찰

시왕도 · 신중도 · 영산회상도 도난
화기 내용 파악 못한 불화 있어
도난 성보 찾아야 사찰史 복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불교명상은 힐링과 레저 뛰넘는 수행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㉔ 불교의 새 영역

우리사회에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종교적 수행이 본질이었던 명상이 이제는 거리감 없이 접할 수 있는 일상적 활동이 된 듯하다. 이제는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관심만 가지면 쉽게 명상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열풍은 종교적 수행 차원의 명상이 아니라 현대인의 지친 삶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일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명상의 역사가 종교의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명상 열풍을 불교수행의 사회적 확산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우리사회의 명상 열풍 속에는 깨달음을 향한 불교 수행 차원의 명상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유행하는 명상들은 대체로 스트레스 해소 등의 힐링(healing) 혹은 여가 생활 등의 레저(leisure)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상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불교적 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외의 힐링과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명상도 분명 명상이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명상이 확산될수록 불교의 명상 즉 불교명상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 불교수행으로서의 명상과 힐링 및 레저로서의 명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교는 분명 힐링과 레저와는 구별되는 사회영역이며 그 사회적 기능 또한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마크 앱스타인(Mark Epstein)은 "불교명상의 영역에는 정신치료를 넘어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보통의 정신치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이해의 머나먼 지평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불교명상이 힐링과 치유보다 존재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불교명상이 레저보다도 존재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음도 물론이다.

이 대목은 여타의 명상과 달리 불교명상은 지향점이 다름을 시사한다. 여타의 명상이 힐링과 레저를 추구하더라도 불교명상은 그 보다는 원천적인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교명상은 불교수행법이기 때문이다. 불교명상은 힐링과 레저가 아닌 어디까지나 종교로서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것이다. 즉 절, 염불, 주력, 사경 등 여타의 불교수행법과 마찬가지로 북방불교의 간화선과 묵조선,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티벳불교의 여러 명상법 등의 불교명상도 본래 불교의 궁극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불교수행으로서 불교명상은 상품화를 위하여 변형된 유사한 명상과는 구분해 생각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상품화된 명상들은 힐링과 레저에 따른 반대급부 즉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들 명상들은 수익을 위하여 불교명상을 변용하거나 심하게는 왜곡하기 때문이다. 불교명상을 상품화한 명상들은 엄밀히 말하면 불교명상이 아닌 불교 모방 명상이다.

불교명상의 과정에서 힐링 효과도 생긴다. 불교명상이 힐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국내외에 차고 넘친다. 또한 불교의 깨달음이 중생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에 그러한 힐링 효과는 불교명상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불교수행법에서도 생긴다. 그리고 여타의 불교수행법으로 인한 힐링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불교명상과 불교수행이 힐링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궁극적 목적이 힐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레저의 목적으로 참선을 할지라도 레저가 불교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될 수 없다. 힐링과 레저는 불교명상의 부수적 목적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 목적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서구심리학 주도 명상치료 조류
불교계가 휩쓸려 동조해선 안 돼
수행 · 성찰로서 명상 의미 살려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명상은 서구심리학이 주도하는 명상치료에 무작정 동조해서는 안 된다. 심리치료학자들은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치료효과에만 관심을 갖는 듯하다. 물론 현대적 방식으로 명상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현재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불교명상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선 불교명상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 불교명상은 비단 신경증 환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보통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왔다. 즉 인간이 지니는 보편적인 괴로움의 종식에 주목해왔다. 이는 불교명상이 불교수행법임을 단적으로 정의해준다. 붓다 이래 불교의 수행은 인간의 괴로움을 해소하고자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불교명상이 불교수행법의 하나라고 규정하는 것은 틀린 말이 절대 아니다.

불교명상은 여타의 명상과 달리 종교적 정체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불교명상은 본래 불교의 수행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명상이 힐링과 레저 그 이상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종교로서 불교는 타력이 아닌 자력신앙이다. 신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붓다가 되어 일체의 고(苦, dukkha)가 제거된 열반에 도달하는 종교이다.

불교명상은 불교의 수행법이기에 불교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불교수행과 동일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 불교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심신 치유의 힐링도 아니고, 여가 활동의 레저도 아니고, 이 둘을 포함한 현실적 욕망의 충족 방법도 아니다. 불교수행의 궁극의 목적은 '본래 부처' 됨이다. 그렇기에 불교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본래 부처'로서의 면목을 깨우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행법이 되는 것이다.



선원에서 불교명상을 하는 불자들의 모습. 성찰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본질이다.

만일 불교명상이 힐링이나 레저 같은 세속적 욕구 충족의 목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종교로서 불교적 정체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없다. 불교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불교수행,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고타마 싯다르타가 수행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생로병사의 고로부터 벗어나고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붓다가 되었다. 이것이 불교명상이 갖는 종교적 정체성이다. '스스로 붓다됨'은 그 누구에게라도 달성이 매우 어려운 목적이다. 그러나 종교적 목적의 달성이 지난(至難)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현세적 목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붓다됨'이라는 종교적 목적의 도달이 어렵다고 하여서, 애초부터 불교명상을 힐링과 레저 등 현세적 욕망의 성취 수단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순간 불교명상의 궁극 목적은 종교적 목적인 성(聖)스러운 것에서 세간적 목적인 속(俗)스러운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에 불교명상은 현세적 가치의 현실적 수용이 아닌 종교로서 불교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힐링과 레저 또는 사찰의 신도와 재정 확보 등과 같은 전도몽상(顚倒夢想)에 근거해 있는 자의식을 깨뜨리고 '본래 부처'로서의 진면목을 바르게 회복하는데 불교명상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모든 사물을 바르지 못하고 거꾸로 보고, 헛된 꿈을 꾸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붓다'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불교수행으로서 불교명상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명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 자아관에 기초한 자질구레한 욕망과 인위적 성취에 대한 몽상을 해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명상과 여타의 명상은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불교명상과 여타의 명상을 가름 짓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아(無我)와 유아(有我)의 차이다. 힐링과 레저로서의 명상은 유아를 위한 것이며, 불교수행으로서의 불교명상은 무아에 대한 지향이다.

무아(無我)는 만물에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實我)가 없다는 뜻이다. 석가모니 이전의 인도사상에서는 상주(常住)하는 유일의 주재자로서 참된 나인 아트만(ātman)을 주장하였으나, 석가모니는 아트만이 결코 실체적인 나(我)가 아니며, 그러한 나는 없다고 설하였다. 그런데 여타의 명상들은 대체로 우주의 근본원리인 범(梵, brahman)과 개인의 본체인 아(我, ātman)가 같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여타 명상들의 요지는 자신의 주관적 정체를 파악하되 자신을 둘러싼 세계, 자연 등 모든 것이 자신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관되어있음을 함께 파악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계관의 근저에는 제 아무리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 해도 그 본질에는 실체로서의 나(我)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상들, 특히 상품화된 명상들이 무상한 실체인 나의 행복을 위한 힐링과 레저로써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명상과 여타 명상을 가름 짓는 점이다.

웰빙과 힐링 그리고 워라밸의 풍조에 힘입어 명상의 붐이 일어나는 것은 불교명상의 성장과 확산에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불교수행법으로서 불교명상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명상의 붐에 뛰어드는 것은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명상 붐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불교명상과 동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타의 명상은 유아(有我)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무아(無我)를 전제로 하는 불교명상과는 다르다. 즉 여타의 명상이 현세를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의 행복에 집착함에 비하여, 불교명상은 나를 버림으로써 영구한 이고득락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명상이 양적으로 성장하고자 명상의 붐 속으로 정체성 없이 달려드는 것은 오히려 불교명상을 쇠퇴시키는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무금사
- 주 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이례로2길
- 주 지 : 보덕 (속명 : 박후남)
- 승 번 : 092-0057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개인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 무료 동영상 강의

- 유튜브 검색창에 "박성욱 세무사"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과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1강 기부금영수증 업무처리
2강 신고납부일정
3강 종교인소득
4강 가산세
5강 종교인소득 절세와 관리요령

※ 동영상 강의 자료가 필요한 종단 및 사찰에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2018년 7월 10일까지 : 2018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0일까지 :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주소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새로운 방생 명소
해룡일출大관음사 해변 힐링 마을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❶ 워크샵, 명상힐링캠프 가능한 최신식 시설
❷ 공양, 커피, 음료수(카페테리아), 불교용품점, 서점
❸ 산중절인 무일선원과 연계가능
❹ 방생의 최적지 - 감포몽돌해변
❺ 갤러리, 법회장소 등 활용가능
❻ 10대 제자사리, 석경, 대형고려16나한 고구려불, 건칠불 봉안
❼ 템플스테이 - 개인 및 단체이용

해룡일출大관음사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경북 경주시 동해안로 1740 T. 054-745-9229


※ B.U.D 山海세계명상센터의 해변절로서 여러시설을 갖추고 있음.

화엄경으로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㊻ 화엄경(華嚴經) 2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인 기세간인 우주법계와 그 곳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세계인 중생세간과 가장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이 존재하는 우주의 파라다이스인 부처님 세계인 지정각세간으로 이루어졌다. 〈화엄경〉은 이곳에서 모든 생성과 소멸을 거치며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음이라는 답으로 알려주고 있다.

조화와 공존은 모든 인류의 화두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이웃,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서로 조화(harmony)를 이뤄 공존(coexistence)하는 것이 나와 더불어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로 공성(空性)이다.

공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물질의 최소단위인 쿼크(quark)와 힉스(higgs)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쿼크를 분해해보면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바로 힉스다. 이 힉스는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을 지니고 있지만 물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에너지만 존재하는 이 힉스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함을 보일 수 없다. 서로 당기는 중력에 의해 뭉쳤을 때만 존재를 나타낼 수 있다. 우주가 이렇게 작은 기본 입자들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100조나 되는 세포로 존재한다. 힉스가 사라지거나 세포 입자들이 사라지면 물질도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 안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지만 업력에 의해 윤회하는 것처럼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살아가는 진여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진여자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더라도 항상 조화와 공존으로 행복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이 〈화엄경〉으로 수행하려면 먼저 경을 읽거나 써봐야 한다. 조용히 앉아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독송(讀誦)이라 한다. 경을 읽는 자신의 소리가 귀로 들려올 때, 소리에 집중하면 부처님이 내게 설법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깨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점점 더 깊이 독송소리에 집중하면 듣는 성품 자체를 다시 반문하는 단계인 반문문성(反聞聞性)에 오르면 관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서, 경을 독송하거나, 염불하는 것이 가장 쉽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지금은 '화엄경의 시대'이다. 많은 스님들의 번역작업을 통해 어려운 경이 가장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으로 바뀌어 출현하고 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부처님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번역된 〈화엄경〉의 등장은 여래의 출현과 같다. 여래가 세상에 몸을 나투심은 천 개의 태양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고통이라는 모든 어둠은 사라진다. 부처님의 가피를 원하며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한다면 불자들은 모두 〈화엄경〉을 가정에 모시고 읽으며 날마다 정진해야 한다, 화엄수행하는 방법을 3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매일 '세주묘엄품' 혹은 '대방광불화엄경약찬게'를 읽는다. 화엄성중이 정진하는 우리들이 가는 길을 옹호하여 모두 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가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보현행원품'을 읽는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발원하며 보현행이란 봉사와 자비의 행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보현행을 위한 십바라밀을 실천하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을 통해 자신을 이롭게 하여 봉사와 정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갖추고, 방편, 원, 력, 지혜바라밀을 통해 타인을 위해 고난의 순간에도 항상 몸을 바칠 수 있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수행하면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행을 넘어 오롯이 자리행(自利行)만 남는다. 바로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부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게 된다.

일 년 동안 〈경전산책〉을 통해 독자분들과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 멋진 만남을 가졌습니다. 헤어지며 화엄수행을 권하니 늘 행복하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 반야사 주지〉

불교에 마음씀 비법 숨겨있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㊺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운명을 만들고 길흉화복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산하대지를 만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 마음은 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뜻이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는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각종 재앙, 무지, 무능의 근원인 탐진치를 사라지게 한다면, 또 반대로 우리 마음에 부처님 전에 복짓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앞에 그야말로 축복과 능력 그리고 지혜의 극락세계가 당장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 마음 속에 재앙, 무지, 무능의 근원인 탐진치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행복, 능력, 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선지식께서는 바로 〈금강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라. 금강경 뜻을 잘 해석하라 그리고 그 내용을 실천하라. 금강경의 골자는 금강경 제 3분, 4분, 5분에 있다. 이것을 종합한다면, 무슨 생각이든지(자신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거의 다 탐진치)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궁리를 가지고 있으면 불행이 오고, 병이 오고, 무지가 되고, 무능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각종 궁리를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친다면, 불행이 변하여 행복으로, 무능이 무한 능력으로, 무지가 참지혜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3년 동안을 금강경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자신의 길흉화복을 만드는 우주의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선지식이 계시는 수도장으로 출가를 하였습니다. 선지식의 수도장은 정갈한 참선도량이 아니었습니다. 소젖을 짜는 목장이었습니다. 오후 불식 및 중노동의 결과 오후가 되면 몹시 배가 고픕니다. 배고픈 생각도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졸립다는 생각도 착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배고프다는 분별심, 졸리다는 분별심이 소멸됨에 따라 자신 속에 내재된 무한 능력이 발동되는 모양인가? 그런 과정에서 안된다, 못한다, 모른다는 생각이 점차 엷어지며 드디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아니 된다〉가 〈된다〉로, 〈싫다〉가 〈좋다〉로, 〈모른다〉가 〈알 수 있다〉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는 저 자신의 위대성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의 참 위대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 자신이 꽤 대견하고 훌륭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나마 자신이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궁리에 빠져들 때에는, 여지없이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시라도 부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발견하면서 부처님의 절대성을 느낀 것입니다.

뒤늦게 수도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수도생활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격적 성숙은 물론 밥 먹여주는 데도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과정에서 생긴 긴 공백을 딛고도 되기 어렵다는 대학교수가 될 수 있었으며, 교수생활을 하면서 탁월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을 통하여 빈곤한 마음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마음이 넉넉하니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게 변하였습니다. 외로움을 잘 타던 나는,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의 실용성은 참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끝〉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왜 '이 뭣고' 인가?

간화선은 달마스님으로부터 중국의 조사선(祖師禪)에서 이어온 수행법이다.

조사선은 육조혜능 이후 마조(馬祖)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사님들에 의하여 전성기를 이루었다.

성(聖)스럽다, 성스럽지 않다는 분별심을 초월한 경계이며, 일체 분별심을 놔버리고 생각 이전 무분별(無分別)의 입장에서는 결코 '안다, 모른다'를 뛰어 넘은 유불회론(唯不會論)이라, 오직 모르고 모를뿐이다.

참선은 알고 있는 분별 세계서 모르는 무분별의 세계에서 시작한다. 대혜스님의 '이 뭣고'도 오직 모를뿐에서 시작이며 '이 뭣고'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실존 문제이며,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존재의 실상이다.

'이 뭣고'는 조주 스님에게 어떤 학승이 "개(狗)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무(無) 하셨는데, "어째서 무라 하였는고?" 하고 참구하는 것이 아닌, 바깥 경계에 향해있는 마음을 안으로, 본래자리로 되돌리는 회광반조(廻光返照)인 것이며, '이 뭣고' 자체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강한 의심이 작렬하고 있는 것이며, '여하시불(如何是佛)',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 답이 종사(宗師)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시불(汝是佛) "너가 부처니라." 즉 문처즉답(問處卽答), 묻는 가운데 답이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객관적 대상(對象)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업식(業識)에 의해서 투사된 그림자 상황을 보는 것이다. 즉 업식의 그림자를 내 마음, 나 자신이라고 착각(錯覺)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자아(自我)인 것이다. 이 분별 망념을 일시에 놔 버릴 때 맞닥뜨리는 것은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이며, 그래서 '이 뭣고'인 것이다"

달마서 혜능에 이르는 선(禪)의 가르침은 불취외상(不取外相) 내심반조(自心返照)라. "밖으로 일체 관념의 상(相)(모양)을 취하지 말고, 놓아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춰봐라"란 말이다. 선(禪)이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념(妄念)으로 번지기 전에 그 즉시 알아차리고 '이 뭣고'로 그 뿌리를 잘라버림으로서 공(空)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일체 분별망념(分別妄念)을 놓아 버린 무분별의 입장서 천지(天地)를 꿰뚫는 한 의심이 '이 뭣고' 화두이다. 이는 존재(存在)의 그림자가 아닌 실상(實相)에 대한 강렬한 의심이다.

육조 스님은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선(앉음)이라 했고, 일체 경계에 어지럽지 않고 행주좌와 어묵동정의 일체처 일체시가 행선(行禪)"이라고 하였다.

'이 뭣고'로 세세생생 익숙한 천만 가지 분별망심(分別妄心)을 하나로 모아 의심이 불덩어리가 되어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되면, 아뢰야식에 쌓인 업장(業障)이 저절로 녹아 버린 그 자리가 바로 가고 옮이 없고, 생사의 고해(苦海)서 벗어난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미륵보살이 거주하고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에 들게되는 것이며, 인간의 400세가 도솔천의 하루로 수명은 4000세(인간세상의 5억8천4백만년)인 것이다.

부처님이 어느날 나무 밑에서 앉았는데 이 돼지새끼를 매고 가는 장사꾼에게 부처님께서 "네가 메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물었습니다.

상인(商人)이 "여래의 지혜를 다 갖춘 분이 이 돼지새끼도 몰라요"라고 답하니, 그러자 부처님이 "그냥 물어 봤노라"라고 하셨다.

왜 물어 봤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며, 여기에 부처님이 말하신 '이뭣고' 화두가 들어 있는 것이다.

진여문(眞如門)을 수행하는 것은 지행(止行)을 닦는 것이라 하고, 본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생멸문(生滅門)은 관을 일으키는 것인데,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것이 생각인데, 관행이란 이것을 살펴보라는 뜻이다. 지관(止觀), 즉 싸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것이 '이 뭣고' 수행이다. 〈끝〉

〈남양주 선재사 주지〉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방석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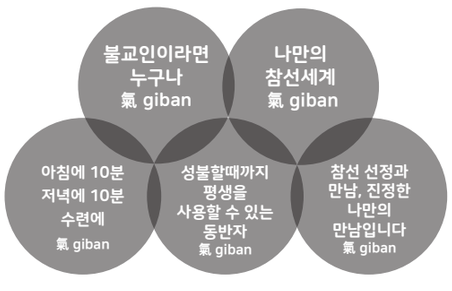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복지재단 씨앗, 열매로 성장"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에 보인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에 보인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보인 스님에게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임명장을 전달했다. 보인 스님은 "그간 재단이 20년 이상 노력으로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부처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갖고 수탁시설들과 협의 하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성료'

뉴미디어 최우수상 '한마음선원'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선원 영상포교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로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독어로 번역된 자막을 탑재한 대행 스님 법문, 연등축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불교 대중화 및 세계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지원 기자**



지역주민과 나눈 따뜻한 한 끼

대구 자혜불교대학, 팥죽대중공양 펼쳐

대구 달서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12월 19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화합과 건강을 위해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팥죽대중공양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자혜불교대학장 도경 스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학장 도경 스님과 한마음봉사단 20여 명은 매년 사정상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 음식을 전달하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도경 스님은 매달 격주로 무료급식봉사와 문화공연, 후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 돕기에 매진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여성붓다' 텐진 빠모 5년 만에 방한한다

1월 5~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티베트 불교서 계 받은 이후
12년간 히말라야 동굴서 수행
마음공부의 요결 전수할 예정

티베트 불교 계를 받은 첫 서양여성 텐진 빠모(Tenzin Palmo) 스님이 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12년간 히말라야산 깊은 동굴에서 홀로 수행한 텐진 빠모 스님은 세계적인 명상가로서 '여성붓다'라고도 일컫는다.

텐진 빠모 스님은 내년 1월 5~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서 '마음과 친구하기'라는 주제로 명상법회를 이끌 예정이다. 행사 주관은 세첸코리아가 맡았으며, 선착순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 깨달음을 얻겠노라 서원했다"는 말로 널리 알려진 텐진 빠모 스님이 대중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할지 기대를 모은다.

텐진 빠모 스님은 1943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평소 영적인 관심이 많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8세 되던 해 불교서적을 읽으면서 스스로 불자임을 느꼈다고 전한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일하다 영적인 길을 추구하고자 1964년 인도로 건너갔다.

텐진 빠모 스님은 티베트 망명스승들이 동자승을 교육하는 북인도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종이에 적힌 '캄트롤 린포체' 이름을 보고 귀의의 마음을 품었다. 이후 캄트롤 린포체를 만나 서양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티베트 교단 사미니계를 받았다. 티베트 불교에서 아직 비구니계를 주지 않았지만 1973년 홍콩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텐진 빠모 스님은 1970년부터 히말라야산 해발 4000m에 위치한 사방 1.8m 크기의 작은 동굴에서 하루 3시간만 잠을 자며 12년간 수행했다. 첫 9년은 가끔 세속에 나와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마지막 3년은 누구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수행자 양성을 위해 2005년 동규 갓찰링 사원을 설립하고, 3년간의 무문관 과정을 도입해 똑덴마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008년에는 둑빠 까규 법왕으로부터 여성수행자 최고 지위인 '제쭌마'를 받았고, 달라이 라마에 의해 '6인의 서양 비구니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텐진 빠모 스님은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묻는다. 살고 죽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중요한 것은 붓다의 딸과 아들로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우선이다. 부처가 육바라밀을 강조한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보고 붓다의 딸과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육바라밀의 실천을 당부했다.

또한 스님은 "인생의 난국을 통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행복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세첸코리아는 "이번 명상법회에서 텐진 빠모 스님이 마음의 구체적인 성품과 작동을 알고, 변화를 볼 수 있는 마음공부 요결을 전수할 예정"이라며 대중의 관심을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산하기관, 양양서 워크숍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360명
"실추된 불교 위상 되찾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산하기관 등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강원도 양양에서 워크숍을 마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제36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을 맞아 종단운영에 대한 기조와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전체 종무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12월 13~14일 양양 낙산사 일원서 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80여 명의 교역직 스님과 280여 명의 일반직 종무원 등 총 360여 명이 참가했다. 교역직과 일반직 종무원 전체가 참여한 워크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보살상 앞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양양군민체육센터서 열린 입재식에서 원행 스님은 "우리는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실추된 불교 위상을 다시 되찾고자 함께하고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한국불교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종무원들은 36대 집행부의 화합과 혁신, 미래라는 종단운영 3대 기조를 공유하는 한편, 이영경 교수(동국대 조경학과)를 초빙해 우리나라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낙산사 참배가 이어졌다. 총무부장이자 낙산사 주지인 금곡 스님은 "2005년 화마로 인해 사찰이 소실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아름다운 도량으로 거듭났다. 종무원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신심과 원력으로 슬기롭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호섭 기자**

오대산문 수행결사 입재

평창 월정사, 한암 스님 승가오칙 정진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2월 18일 대법륜전에서 오대산문 수행결사를 입재했다. 수행결사에는 월정사 사중스님과 오대암자 감원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4일간 월정사, 상원사, 중대사자암, 자연명상마을에서 한암 스님의 승가오칙(참선·염불·간경·의식·수호가람) 수행가풍을 잇는 정진의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저소득 가정 도운 화엄사

구례군에 총 500만원… 25세대 전달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2월 19일 구례군(군수 김순호)을 찾아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 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마련한 기금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모연한 250만원과 화엄사 신도회 후원금 250만원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25세대에 전달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래종 창종 53주년 행사

창종주 인왕 스님 탄신일 다례재도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은 12월 16일 금강약사사 큰법당에서 '창종 53주년 및 창종주 인왕 스님 탄신일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명안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석산 스님, 행정부원장 혜안 스님, 호법부원장 성현 스님, 비구니회장 묘선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제 54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4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9년 1월 6일(일) ~ 1월 12일(토) [1주간]
■ 모집인원 : 60명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수련회비 : 49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양말·운동복·운동화·목도리·장갑 등
■ 휴 대 금 지 : 현금, 휴대폰, MP3 등
■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054-744-1689
■ 홈 페 이 지 : www.sunmudo.com

주요 프로그램

호연지기와 인성함양 프로그램
선무도수련과 힐링명상, 승마/국궁,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
주지스님의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캠프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사범지도)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 학습
동경주 유적답사
기림사.감은사지.문무왕릉
역사교육체험-경주국립박물관



※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선 무 도 화 랑 학 교

불전부·아함부·반야부
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불전부 · 아함부 · 반야부 · 법화부 · 화엄부 · 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병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7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 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개강 : 2019년 1월 8일(화) 오후 7시 (2개월)
● 제1강(오후 7시) ● 제2강(오후 8시 20분)
● 내용 : 아함부 2 육육법설 법문(16강)
● 과정 : ● 아함 1 : 십이처 십업설 법문(16강)
● 아함 2 : 육육법설 법문(16강)
● 아함 3 : 오온 · 사제설 법문(16강)
● 아함 4 : 12연기설 법문(16강)
● 강의 : 최봉수 교수
● 장소 :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 문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732-1207 www.dongsanbud.net

“장애 따른 차별 없는 세상을”

안동장애인福 송년행사, 우수봉사자 등 격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14일 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나누는 사랑,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송년행사를 열고, 한 해 동안 복지관 운영에 힘을 보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 행사에는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 김동룡 안동시 부시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이용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송년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이용자들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안동시장상에 김종훈 · 김용호 씨, 김광림 국회의원상에 김지현 · 김현중 씨, 안동시의회의장상에 임연조 · 성규숙 씨,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고운사지부장상에 권용혁 · 김순희 씨, 안동사암연합회장상에 축서사 신도회 · 신시장해물 · 김금순 · 김명희 씨가 선정됐다.

복지관 운영위원장 도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태고종 전북, 주지총회 · 지방종회

베트남과 한국불교문화유산 공연 추진키로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는 12월 14일 주지총회 및 지방종회를 개최하고, 전북종무원 사찰 분담금 조정안과 2019년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봉서사와 관련해 봉서사 대책위원장으로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추대했다.

새해 전북종무원은 분원사찰을 순방하며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비전통사찰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매년 승려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는 내년 5월 베트남 호치민시와 닥락성에서 한국불교문화유산 공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태고문화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베트남 한글학교 설립과 식수대 지원사업, 군부대 포교활동, 자비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주지총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전북종무원 공찰 봉서사 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교구 종무원들의 힘을 모아 총무원 집행부에 의견을 전할 것을 천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해엔 군산불교 발전 모색”

군산사암연합회, 군산불교의 밤 개최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는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군산불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12월 15일 군산 한원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성흥사 송월 스님, 관음사 도천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과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장,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군산불교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군산여고 1학년 원아영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군산불교연합합창단인 그린비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각 사찰별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佛都 부산, 추운 겨울 나눔에 ‘훈훈’

승가 · 신행단체, 연탄 · 김치 등 자비 나눔 줄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도(佛都) 부산을 대표하는 신행단체와 기관들이 추운 겨울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김장 나눔과 연탄 및 장학금 등 풍성한 나눔 소식이 연이어 전해져 부산을 마음 따뜻해지는 자비로 뒤덮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연말을 맞아 12월 11일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진행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박수관 회장과 임원들은 직접 김치를 담가 부산진구청에 연탄 1만7800장과 김치 2000kg을, 금정구청에 연탄 1만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7일에는 부산진구 부암1동 난방 취약가구에 연탄배달 봉사를 펼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도 12월 12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부산 비즈니스 호텔에서 ‘사랑나눔 하루찻집’을 개최했다. 하루 찻집에는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봉사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봉사 모임을 운영, 목욕봉사,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관 회장은 “추운 겨울 이웃을 위한 나눔이 필요한 때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온기를 전하고자 행사를 열게 됐다”며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매년 소외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자비나눔 승가모임인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12월 16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서 ‘자비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연탄 나눔에는 화엄승가회뿐 아니라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부산교수불자회(회장 장상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김정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동문회(회장 최은희) 등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스님과 재가자 등 사부대중
연말 이웃돕기에 의기투합
소외계층 물품 · 기금 지원과
학생들 위한 장학금 전달도

참여한 모든 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연해 모은 기금으로 연탄 1만장을 마련했으며, 연탄은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위치한 난방 취약 계층 총 45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자인 스님은 “따뜻한 마음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모두가 함께해 더 아름다운 행사가 됐다. 나눔을 위해 화합하는 이 마음이 사회를 밝게 만든다”고 격려했다.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대표 신행 단체와 사찰이 추운 겨울 이웃을 위한 나눔 행진을 이어갔다. 사진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김장을 담그는 모습.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2월 19일 경내 법당에서 종립학교 금정중학교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에 이어 천불정사는 다가올 동지를 맞아 부산대 앞 정문에서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동지 팥죽 나누기도 진행했다.

주지 고담 스님은 “동지가 되어도 집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고향을 잠시나마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팥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정중학교와 연계해 인재불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12월 19일 사상르네상스 뷔페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눔을 위한 일일 찻집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지역 초 · 중 · 고 및 대학생 26명에게 각 30만원씩 전달했으며, 하루 찻집 수익금은 장학기금 및 소외계층 후원자금, 빈곤 해외국가 구호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연제구불교연합회(회장 무관)는 12월 17일 부산시청 등대광장에서 팥죽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새해 덕담과 복을 기원했다. 연제구불교연합회는 팥죽 2000인분을 시민들에게 전했으며, 이에 앞서 백미 2000kg를 연제구청에 전달해 따뜻함을 더했다. 행사에는 연제구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승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이성문 연제구청장, 각 회원 사찰 신도들이 참석했다.

부회장 법승 스님은 “작지만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 추운 날씨에도 와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범어사 ‘성보관’ 새로 짓는다

2020년 3월 완공 예정
문화재 보존 역량 기대



범어사는 12월 19일 상마마을 인근 성보관 공사터에서 ‘성보관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 시작을 알렸다.

스님과 불자들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인 ‘성보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들어 올렸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19일 상마마을 인근 성보관 공사터에서 ‘성보관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 시작을 알렸다. 착공식은 개회식에 이어 내빈 소개 및 경과보고, 주지 경선 스님의 기념사,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 방장 지유 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시삽으로 공사 시작을 알렸다.

범어사 경내에 위치한 기존 성보박물관은 공간이 협소해 문화재 보관 및 전시에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성보박물관 건립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새롭게 건립될 성보관은 총 125억4400만원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4,940㎡ 부지에 지상 2층 · 지하 1층, 연면적 2,970㎡ 규모로 지어진다. 내부는 전시 · 연구 중심의 공간과 수장고 등이 들어선다. 완공은 2020년 3월 예정.

현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부산시 문화재의 3분의1인 100여 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삼국유사〉를 소장해 중요도가 높다. 보물인 〈삼국유사〉는 현재 국보 승격을 신청한 상태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사천왕도를 비롯해 조선후기 불화 70여점 및 진영 40여점, 책판 16종, 편액 23종 등 중요한 문화재를 좁은 규모에서 어렵게 관리해 왔다.

주지 경선 스님은 “수행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성보관 건립

을 위해 오래전부터 진력을 다해왔다”며 “범어사는 한국불교의 중심이다.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산시 관계자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착공식에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과 주지 경선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재정 파탄 일본항공 스님 손끝에 살아나

JAL 회장 가즈오 이나모리 스님 경영 신화 '조명'



이나모리 스님은 빚더미에 오른 JAL에 '소방수'로 등장해 오늘날 제2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사진출처=채널뉴스아시아

박정현 객원기자

1980년대 세계적 항공사
민영화 이후 적자 시달려
경영자 출신 77세 스님이
구원투수로 경영책임 맡아

철저한 수행능력 바탕으로
수익성 다시 살려 재건해
무보수 일하며 '귀감' 평가

한 때 파산에 처했던 일본항공(Janpan Airlines, 이하 JAL)을 재건한 일본 임제종 승려 가즈오 이나모리(稲盛和夫 · 86)의 '경영 신화'를 채널뉴스아시아가 12월 15일 재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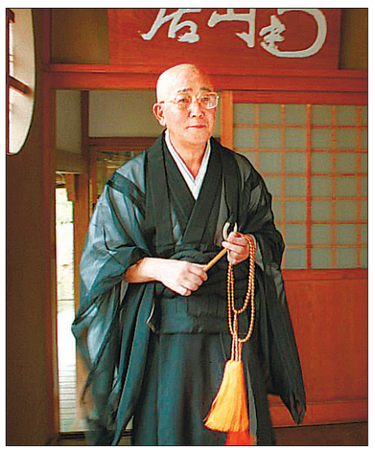
교세라 명예회장이자 JAL 회장인 이나모리는 약 8년 전 빚더미에 오른 JAL에 '소방수'로 등장해 오늘날 제2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당초 국영기업이었던 JAL은 1980년대만 해도 승객 및 화물 운송 부문에서 세계 최대 실적을 거둔 항공사였다. 당시 업계에서 가장 큰 보잉747 기종을 보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7년 민영화된 후 재정 파탄의 길을 걸으며 속히 '망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국영기업으로서 타성에 젖어 있다가 정부의 관리 감독이 중단되자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은 것. 당시 JAL은 자생능력이 완전히 결여돼 민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설상가상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전 세계적인 '사스 감염' 사태에 큰 손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부터 저가 항공사가 소규모 항공기 및 인력 절감, 연료비 및 간접비 절감 등으로 시장 확장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JAL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결국 280억 달러(한화 약 32조원)의 부채를 앉고 2010년 파산하게 됐는데, 그 파산 규모가 일본 내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주요 원인은 '투자 실패'가 꼽힌다. 약 40년 전 JAL에서 파일럿으로 근무했던 히로시 스기에는 "경영진의 야심찬 확장 계획과 항공사 외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이 틀어졌다"며 "이사회는 1980년대에 뉴욕 맨해튼 호텔을 1억9000만 달러(한화 약 2145억 원)에 인수해 수리에만 1억 달러(한화 약 1130억 원)를 지출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이었다. 30년 동안 매일 모든 방이 예약됐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 9월 교토 야와타시 엔후쿠지로 출가해 불도를 닦은 이나모리 스님. 사진출처=조일신문디지털

이 때 가즈오 이나모리 스님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스님은 당초 경영에 몸담았었는데 65세 때 퇴임 후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다 당시 77세의 나이로 JAL을 위해 다시 경영에 뛰어든 것이다.

항공업계에서 경영 경험이 없지만 그는 곧장 최고 경영 책임자이자 의장이 됐다. "경영에 대한 기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JAL은 변화할 수 없다"는 경영진의 판단에서였다. 당시 경영진들은 사내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신선한 인물'이 필요했다고 한다.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이나모리 스님이었다. 이나모리 스님은 세라믹 부품 회사인 교세라(Kyocera) 창립자이기도 하다. 교세라는 1959년 28명의 직원으로 출발해 2009년 3월 기준으로 직원이 6만 명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나모리 스님은 소형 벤처기업에 불과했던 교세라를 일본 내 주요 하이테크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JAL을 일으킨 교세라의 성공 비결에 대해 '아메바(Amoeba) 경영 방침'이라고 평가한다. 교세라 기업에도 적용됐던 '아메바 경영'은 기업을 자기억제의 작은 단위로 나눠 공통된 목적을 좇아 일하도록 하는 경영문화다. 각각의 '아메바' 단위가 계획을 세우고 한정된 매출을 유지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나모리 스님은 시간당 채산표를 통해 매월 아메바들의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과 도태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나모리 스님은 JAL에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일해 업계 안팎의 박수를 받았다. 대표 경영자가 월급도 받지 않고 헌신한 것이 임직원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그의 확고한 자신감과 철저한 수행 능력이 더해지며 JAL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다고 한다.

이나모리 스님은 "이전까지 JAL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수많은 임직원들을 보면서 회사 재건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JAL이 무너지면 일본 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JAL을 재건해야 하는 중책을 받아들인 이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JAL은 이나모리 스님이 경영권을 잡은 후 다시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항공사로 발돋움했다. 또한 이나모리 스님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담은 책을 11권 이상 펴냈다. 해당 저서에서 스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인간적인 면과 매출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라는 사업 방식이 합쳐진 경영 마인드를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이나모리 스님이 운영하는 경영 아카데미 세이와주쿠(盛和塾)는 올해를 끝으로 36년 만에 문을 닫는다.

설법하는 목조불상, 젊은이에 인기

공학도 출신 日 스님, 개인 기술 종합해 조성

높이 115㎝ '자아여래상'
사람 따라 고개도 움직여

AI와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요즘, 로봇기술을 이용한 불상이 조성됐다. 지난 12월 12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이 독특한 로봇불상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거주하는 무라이 쇼넨 스님(79)이 조성한 로봇불상은 현재 오사카 시립미술관에서 개최 중인 '일본미술공예회 전시전'에서 공개됐다. 스님은 "이것이야말로 현대의 불상이다. 80세를 맞이하기 전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집대성했다"며 불상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자아여래상(自我如來像)'이라는 이름이 붙은 불상은 높이 115㎝, 폭 75㎝의 목조 불상이다. 불상의 내부에는 다양한 기계장치가 설치돼 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불상의 발끝에 설치된 센서가 반응해 이마의 백호가 빛나면서 작동이 시작된다. 내장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설법을 하며, 센서 감지를 통해 사람이 서있는 방향으로 고개가 움직이는 로봇 장치도 함께 기동한다.



기동 중인 로봇불상을 소개하고 있는 쇼넨 스님. 사진출처=요미우리신문

불상을 조성한 쇼넨 스님은 1968년 산업용 로봇회사를 설립해 TV와 냉장고 등을 자동 조립하는 로봇을 제조, 판매한 공학도 출신이다. 45년 전 관광차 방문한 사찰에서 구입한 목조불상을 통해 불상의 매력에 빠져 취미로 목조각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후 교토의 불상장인에게서 불상조각을 사사하고 본격적으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불상을 조성하던 중에 발심해 출가하기에 이르렀다. 스님은 "당시에는 회사경영자와 불사(佛師, 불상조각가), 승려라는 3박자를 갖춘 것이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1998년 불상조성에 전념하기 위해 사장직에서 은퇴, 불상을 더욱 여법하게 조성하고자 공기와 산수가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스님은 지금껏 100구 이상의 불상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취미교실로 불상제작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젊은 세대들이 불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일부러 보러 올만한 재미있는 불상, 현대에 맞는 새로운 불상을 조성하길 발원했다"고 밝혔다. 오랜 구상 끝에 지난해 8월 조성을 시작해 올해 9월에 처음 공개됐다.

스님은 "처음 공개됐을 당시 젊은이들로부터 '3D프린터 기술을 사용했는가' '어떻게 기동하는가' 등의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며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물론 기존 불교미술계의 비판도 거셌다. 스님은 "로봇처럼 움직이며 말하는 불상에 대해 어떻게 신심을 내어 예경하겠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에 있을 수 있는 불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길 원한다"고 조성 의의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最古 광배 거푸집 최초 발견

8세기 나라시대 전반
불상조성법 추정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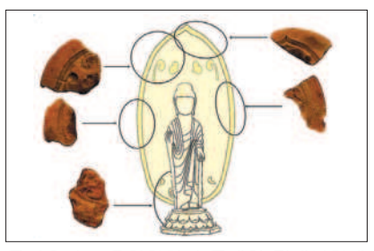
고대에 금동불을 조성하던 방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일본에서 출토됐다. 일본의 사가현(滋賀県), 쿠사츠시시(草津市)에 소재한 사카키자시(榊差) 유적에서 불상의 광배로 추정되는 거푸집 파편이 출토됐다. 12월 13일 일본의 '산케이뉴스', '아사히신문', '니혼케이자이신문' 등 주요 언론사들은 해당 뉴스를 대서특필했다.

사카키자시 유적은 나라시대(奈良時代) 전반기인 8세기 초 집락유적으로 2015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적에서는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와 대장간의 유구가 발견됐다. 올해 5월에는 솥이나 냄비의 다리인 수각(獸脚) 거푸집이 출토되는 등 일본 최고(最古)의 금속기 제작지의 유적으로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공개된 광배 거푸집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출토당시 18개의 파편이 발견됐다. 발굴을 담당하는 쿠사츠시 교육위원회는 "광배거푸집은 5월에 수각거푸집이 출토된 것과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광배출토지를 가리키는 쿠사츠시 교육위원회 위원.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쿠사츠시 교육위원회가 공개한 광배복원예상도.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발굴된 거푸집 파편은 최대길이 9.5㎝, 폭은 5㎝의 연잎형태로 구름과 당초문이 조각돼 있었다. 광배를 좌대에 꽂는 고정침 부분도 함께 발견됐다. 파편을 통한 광배의 전체높이는 20㎝, 폭은 10㎝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불상 중에 일치하는 광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위원회의 이노우에 카즈토시 교수는 "광배의 거푸집이 출토된 사례는 매우 의미가 깊다. 고대의 불상제작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발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8세기 광배의 특징인 투각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데서 "투각기술이 수공제작뿐만 아니라 주조로도 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 현존하는 8세기경의 금동불 중 광배가 남아 있는 것은 100구 미만의 극소수다.

사카키자시 유적지 근처에 나라시대 후반의 사찰인 카사데라(笠寺) 폐사지 등 불교유적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위원회는 "다리가 달린 솥은 사찰에서 주로 사용하던 물건이다. 5월 출토된 수각 거푸집과 이번에 발견된 광배거푸집이 불교유적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와 관련해 유적지가 "불교용품을 조달하던 공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13〉 기쁨(희각지)

아잔 브람

수행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오늘 강의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행의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열일곱 살 때 불교에 관한 책을 읽고 불교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에 있는 불교 사원을 몇 군데 다녔고 결국 출가를 결심할 만큼 신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어느 전통에서 출가를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상좌부 전통을 선택한 후에도 상좌부 불교 중의 어느 나라 사원에서 출가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런던에 있는 스리랑카 사원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그 사원에 계시던 스님은 몹시 불행하고 화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스님 문하로 출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가를 하지 않아도 불행은 충분하게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성직자들은 모두들 심한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교회는 몹시 추웠고, 방석도 없는 단단한 나무 의자에 앉아야 했으며, 설교는 지루하지 않으면 위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 불에 타고 갖가지 고문을 당한다면서 협박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당연히 조금 나이가 들자 그런 종류의 종교에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접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순간의 공통점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감각적 경험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행복을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각적 경험이 실제로 행복을 주었습니까? 감각적 쾌락이나 성적인 망상이 진짜로 행복을 줍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각적인 경험은 우리를 계속 맴돌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행복은 감각적 경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십시오. 평화롭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십시오. 아마 바닷가에 놀러가서 그저 편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던 순간이나 산이나 절에서 지내던 순간들, 혹은 그저 차를 마시며 나무나 꽃을 보고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느꼈던 순간이 기억날 것입니다. 수행자라면 수행 중에 느낀 행복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의 공통점은 그 순간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흡족했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하나의 여정을 끝내고 긴장을 풀었던 순간이거나 다른 무엇을 얻으려 애쓸 필요가 없었던 순간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할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있게 합니다. 만족감에 의해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섹스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섹스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다음 경험을 향해 질주할 뿐입니다. 결코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 움직여갑니다. 유명해지거나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되어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돈이 충분하니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또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합니다.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날 만큼은 끝났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행복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놓아버리는지 그 바법을 알면 됩니다.

붓다다사(1906~1993)라는 유명한 태국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의 가르침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지혜를 갖춘 분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사원에서 법당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불교의 전통에서는 우기 안거 삼 개월 동안 스님들이 여행도 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일도 삼가면서 수행에 정진합니다. 당시에도 우기 안거가 다가오자 붓다다사 스님들은 인부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공사를 잠시 중단하여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활 속 감각적인 경험들이
진짜 행복이라 믿는 사람들
돌이켜보면 욕망만 키워내
만족할 때 기쁨이 솟아난다

안거가 시작된 며칠 후에 신도 한 분이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법당을 둘러보면서 붓다다사 스님에게 언제쯤 공사가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붓다다사 스님은 법당 공사가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도는 몹시 놀라면서 창문에는 유리도 없고, 지붕에는 기와도 얹혀 있지 않고, 시멘트 포대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아직 문도 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이러한 법당을 어떻게 공사가 끝났다고 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붓다다사 스님은 '공사가 끝난 만큼은 끝났다' 고 말하고는 수행하러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추는 것이 바쁜 사람이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일은 언제나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명상수련회를 했지만 니밋따도 나타나지 않고, 선정도 얻지 못하고, 예류자도 되지 못하고, 그 밖의 다른 증득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룬 만큼은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풀기 바랍니다. 자신의 수행 상태가 어떠한 것이든 그곳에서 만족하십시오.

부처님은 만족, '산뚯티' 를 가르쳤습니다. 만족이란 지금 이 상태를 충분히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날씨가 어떻든 수행 상태가 어떻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손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에게는 결혼이 감옥입니다.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 병원의 침대가 그의 감옥입니다. 승려가 환속을 원한다면 승복이 그의 감옥입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현재의 수행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원한다면, 예를 들어 호흡을 알아차리는 단계에서 니밋따를 원한다면, 그 순간에 수행자는 자유를 잃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얻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병들었다면 병들어 있기를 원하십시오. 현재 있는 그곳에 있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나이 든 상태를 원하십시오. 육체의 나이가 더 이상 감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거처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거처로 옮기고자 한다면 현재의 거처는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처가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거처를 옮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호흡의 단계에서도 자신의 수행 단계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이나 수행을 했는데 겨우 이 정도냐고 생각하며 불만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불만족을 야기한 것은 현재의 수행 단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명상 수행이든지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그 수행을 충분히 좋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곳에 있는 것에 행복해하십시오. 니밋따 수행도 아니고 선정 수행도 아니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바라보는 이 순간의 호흡 수행에서 행복을 느끼십시오. 행복을 느끼면 자유롭게 만족하게 됩니다. 만족하면 기쁨과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감으로 인해 더욱 커다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니밋따가 나타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만족해하자 니밋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고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성제, 연기, 놓아버리기 등의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수행은 점점 더 진전하게 됩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하는가' 입니다. 경험에 대한 내면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비록 여기에 있지만 다음 단계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괴로움의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고 수행은 급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대할 때도 방문객의 마음가짐으로 대하십시오. 자신의 수행도 방문객의 마음가짐으로 대하십시오. 수행을 자신의 수행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소유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문객의 태도로 대하면 놓아버리기가 쉬워집니다. 방문객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느낄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인의 자세가 아닌 방문객의 자세로 대한다면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면서 계속 실망하는 대신 마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방문객으로서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느끼게 되고 만족감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인으로 남아 있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 . . .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대행 스님

항상 남을 내 몸과 같이 이익하게 하라

한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요

문)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마음 주인공 공부를 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요.

답) 여러분의 생각이 구태의연하게, 즉 말하자면 관습에 의해서 매달리고 앨 쓰고 돌아간다면 그게 바로 운명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자 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남이 말하는 데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내년에 죽는다.", "내년에 잘못된다.", "삼재가 들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서 내 중심을 상실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냥 주인이 없는 빈집이 돼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주와 더불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으로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벌레로부터 나 아님이 없느니라. 부처님 마음에서 태어난 천백억화신은 바로 응신으로 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벌레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나투어서 응신으로서 응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이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늙으나 젊으나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능력과 더불어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마음이 소소한 거를 가지고 해 본다면 이런 거 뭐, '안 된다, 된다' 이런 거에서 여러분은 그만 매달리고 말죠. 그러나 안 되고 되는 것은 다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되는 거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안 되는 것 되는 거를 다 아귀에 쥐고 있잖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뜻은 움죽거림과 마음 내는 거와 근본과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가는 거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죠, 모두가.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시듯. 그러면 그 주인공은 시공을 초월해서, 안에도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거니와,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도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 있고, 천차만별의 의식에다가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이 개체 하나가 세계와 같다 이겁니다. 이 개체, 몸 하나가. 이 몸속에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한 공장이 만약에 침체됐다, 부도가 났다 이런다면은 사람의 몸, 집 자체가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세요. 몸뚱이 자체가 나만이 사는 내 것인가.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죠. 그러고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그래서 고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모두가 이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수억겁 전부터 진화돼서 온 그 모습이…, 자기 육신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인과로 인해서 바로 자기한테 인연이 돼서 자기 영혼 근본과 더불어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날 때에 바로 같이해야만이 이게 한 개체의 덩어리가 되니깐요.

또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작으냐 크냐,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가 과거에 살아나온 그 차원에 따라서, 이 몸속에 인과성이 많으냐, 영계성이 더 많으냐, 유전성이 더 많으냐, 아니면 세균성이 많으냐, 업보성이 많으냐.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거를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없다 이런 거죠.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니까,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니까 팔자 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진짜 우리가 이런 공부 하는 것이 천 년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실천을 하면서 갈 수 있나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 소리를 안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 소리를 지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내 마음을 따라 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주가 별성을 수없이 낳듯이, 블랙홀이 수없는 그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 근본만 들여서 다시 생산을 시키듯이,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이 마음 자체가, 이 모든 더불어 같이 사는 이 개체의 의식들이 다 내가 마음을 내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니깐요. 내가 마음만 제대로, 거기다가 나오는 대로 되놓을 수 있다면 또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따라 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죠. 나라가 쇠퇴해서 망하게 되니까 싸움이 벌어졌더랍니다. 이거는 방편상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는데, 부처님 경계에는 급할 때에만 그거는 쓰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자면 '이원대법'이고, 예전에는 '이보경계'라고 했습니다. 이보경계. 그 대원법칙. 이 모두가 이원대법으로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이 한마음, 이 속에 들어 있는 그 의식들과 더불어 안에서는 안대로다가 모든 그 의식들을 다, 급하니까 내보내서 그 군사들한테 전부 투입한 겁니다. 투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영에다가 영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죠. 그래서 이원대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몇 배로 솟아나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데에 모두 군사는 적고 그러니깐 저쪽 군사들한테 안이한 마음을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너무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저런 나무 이파리도 군사로 쓰였다 이겁니다. 얘기를 하려면은 말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두고두고…. 그렇게 하는 데에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만약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별성은 못 되겠소, 태양이 못 되겠소, 우주가 못 되겠소? 블랙홀이 못 되겠소, 다른 흑성이 못 되겠소?

날아다니는 새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앉아라!' 하면은 앉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려면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배우는 사람은 항상 남을 이익하게, 내 몸과 같이 이익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이 마음공부를 해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써 자기 원한심을 품고 톡톡 건드리면 손오공 밖에는 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나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주 세계도 문젭니다. 그냥 허탕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중세계예요. 승진을 하느냐 내려가느냐 문제가 달린 중세계예요. 하세계는 따로 있느냐? 하세계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하세계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죠? 육식 동물이나 저 채식 동물이 그냥 서로 살면서 서로 잡아먹고 하는 거 보시죠? 그것이 하세계예요. 우리 인간은 중세계다. 그럼 또 상세계는 뭣이냐. 상세계는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고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상세계예요. 이 우리 흑성에만이 이렇게 중세계가 살고 있는 건 줄 알지 마세요.

우리가 상세계로 차원이 그만큼 이 세상에서 올라간다면 모두 하세계 상세계를 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심전심으로써 통신할 수가 있죠. 그건 왜냐. 그렇게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거든요. 우주의 생명, 하세계의 생명들이 전부 중세계의 생명들과 같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게끔 다 이렇게 중심에는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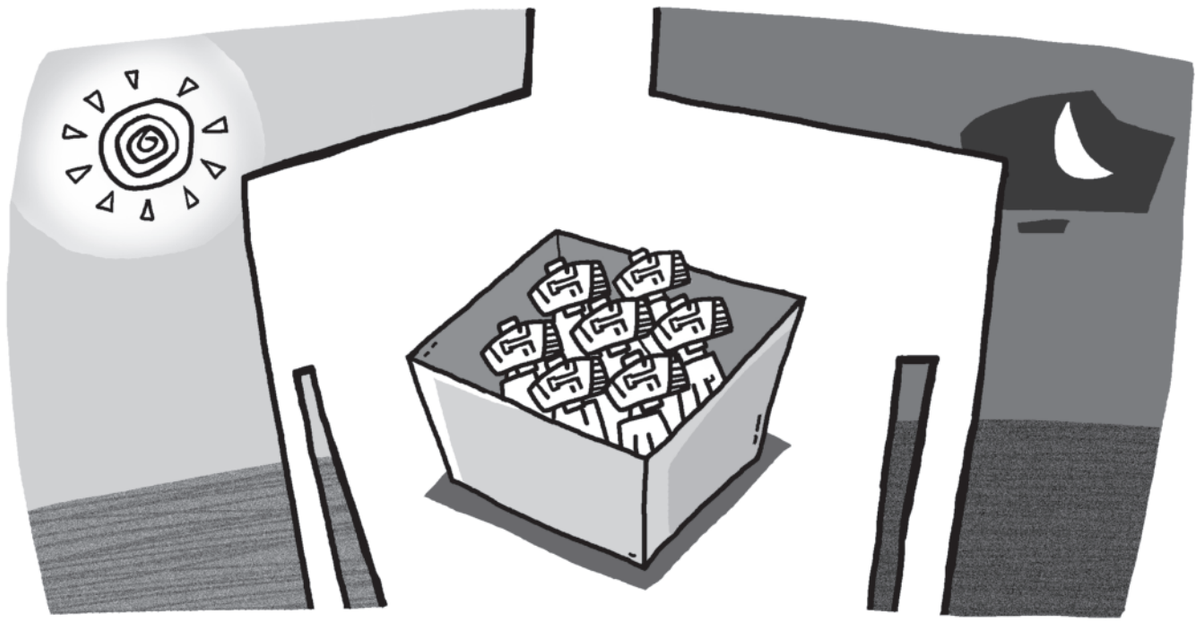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건강백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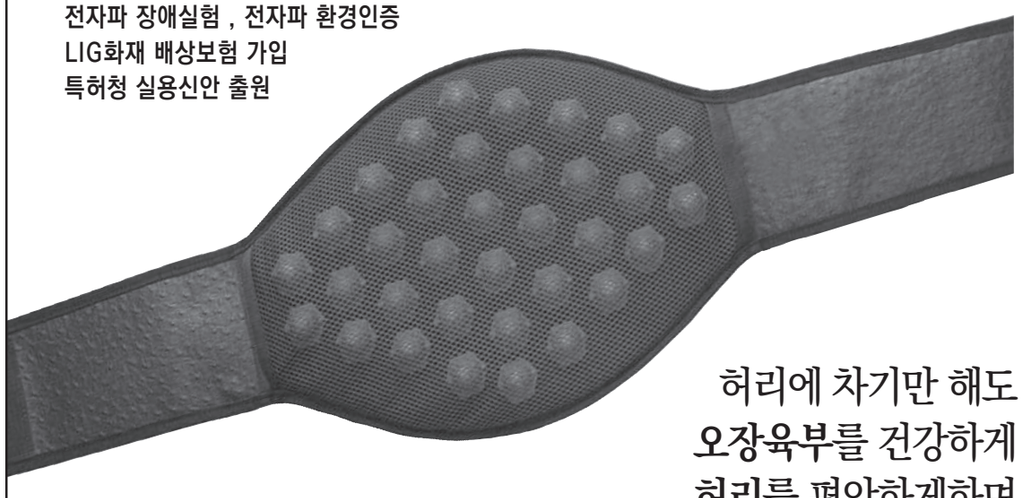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 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 다양)

잘못됐든 잘됐든 걸리지 마세요

☞ A17면에서 계속

다 돼 있어요. 가설이 다 돼 있다고요. 딴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근본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아무리 속여도 나는 내가 못 속인다는 속담의 말이 있죠? 내가 나를 못 속이듯이,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할 때에 심사숙고하게 정신 바짝 차려서 해라 이 소립니다. 왜? 못 믿어 봤자야 자기를 자기가 깎아 먹는 거와 같고 무시하는 거와 같으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거든요. 이 도리를 완전히 알아야만이 서로 한마음으로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누가 뭐랍니까? 그때에는 말마따나 참 대장부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는 주먹을 쥘 수도 있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려면

문) 요즘 저의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돼서 그런지 괜히 짜증을 부리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잘 대해 주었는데 이제는 저도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또 아빠를 멀리하게 되고요.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이끌어 가려면 결국 제가 죽어야 되겠죠?

답)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지도 말고 올려 치켜세우지도 말고 중도에 항상 놓으면서 항상, 어지러운 걸 봐도 내 모습으로 보고, 아주 모르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것이 내가 모를 때 내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본다면 원망도 안 들어가고 무시하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이렇게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어이구, 저렇게….' 그냥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들고 말이 좋게 나가질 않고 얼굴부터 찌푸려지고 이러죠? 얼마나 총총걸음을 걷는다고, 얼마나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가 멀다고 그렇게들 야단들을 하고 싸우고 옹옹거리고 그냥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고 삽니까? 예?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부인이 있고, 부인은 나로 인해서 남편이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자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우릴 화목하게 돌아가게 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밖에 없다.' 하고는 놓고 "여보! 이제 들어왔소?" 상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더라도 "여보! 어디서 뭐 속상한 일이 있소?"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해 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늑하냐 이겁니다. 신경질 내다가도 안 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신경질을 내는 걸 보면 벌써 한 번 "으이그, 괜히 신경질이야!" 이러면서 그때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을 화목하게 살아가며 어떻게 자식들에게도…. 이것이 거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먹는 대로의 그 마음의 초점이 이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좋게 말을 하고 여기다가 맡겨 놔도 그냥 금방 돌아서서 마음이 착해지면서 "여보, 이러고저러고 이러고저러고 했어." 하고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 말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 남을 웅크려 뜯지 말고, 웅크려 뜯을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더라도 부부니까, 부부 아니더라도 그래요, 모든 게. 죽이고 들어왔더라도 "여보, 그걸 어쩌다가 그랬소? 그래도 너무 상심 말아요. 아이, 죽으면 죽지, 뭐.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해 나가고 여기다 다 놓는다면 그 사람이 그냥 잘 이끌어지고 그것이 잘돼요. 자식도 그래요. 나가서 계집질을 하든, 나가서 노름을 하든,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내버려 두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말 잘못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상전이라고…. 부처님 모실 때 부처님을 잘 모시려면 효도하고 충성하고, 자식을 잘 이끌고,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이끌고, 형제지간에 잘 끌고, 이렇게 지혜가 넓어야 이것이 바로 불법을 잘 이끌어 가는 거기 때문에 불법을 빨리 승화를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불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한 것은, 만약에 내가 이론적으로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에 이익이 하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말을 하면서도 말은 이것이 법이 되는 법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난 이론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애당초부터.

벌이 어쩌다가 방에 들었는데 창이 문인 줄 알고 쪼다 보니까 몸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입 떨어지니까 말도 떨어지더라."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은사가 미워하고 그러다가 다시 자기 자리에 앉혀 놓고 절을 했단 말이 있죠.

또 어떤 스님네들이 셋이 가다가 지네가 이만한 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발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지네 발이 많은데 지네더러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지네 좀 봐.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도 걸리지 않고 가는 것 좀 봐." 하니까 지네가 딱 서 가지곤 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걸려서. 그 말에 걸렸거든. 걸려서 가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고만 세 스님네들이 깨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걸어가다가도 말을 하면 거기에 걸려 가지고 아주 옴패부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걸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잘못됐더라도 걸리지 말고, 잘됐더라도 걸리지 말고. 그게 잘못됐더라도 그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 돌아가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그냥 놔 버려요. 그 기운, 힘 있는 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다 놔 버려요. 내가 만약에 이 오신통이, 기계가…, 보물이 여기 있는데 이 보물한테다 자동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이거 여기다가 다 맡기지 않고선 내가 가지고 할 양으로 모두 간섭을 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 컴퓨터고 탐지기고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할 걸 믿지 못하니깐, 거기다가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 잘못됐더라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 순간 돌아가니까 겁내지 말고
> 그냥 그냥 놔 버리세요.

저를 시기하는 동료가 있어요

문) 직장 동료 중에 제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시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딱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 탓이려니 하다가도 은근히 화가 납니다. 이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답)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 아니냐?' 하는 거죠. 또 좋게 했으면 '아이휴, 감사하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것. 어떠한 일이 과거로부터 인과로 닥친다 하더라도 '음, 과거에 입력이 된 거고 입력이 된 것도 네가 한 거니까, 입력을 없애는 것도 네가 하는 거다.' 하고 다 맡겨 놓고,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것도 너밖엔 없다.' 하고 거기다, 생활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준 놈도 너니까 안 주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고, 상대에서 모두 나쁘게 나를 묘략을 하고 들어올 때도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다보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그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스스로서 녹아져 버리고 내 마음과 같이 착해지고 의리가 있게 되고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를 대하고 아무리 마구니라 할지라도 마구니라는 생각을 말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마세요. 모든 것은 내 모자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내 모습이요. 지금만 내가 살았던 게 아닌 까닭이죠. 그럼으로써 모든 잘못, 가정에서도 자식이나 모든 형제나 잘못됨이 있으면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 그러한, 그 주인공에서밖에는 해결 못한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형제하고도 자식하고도 잘 똑바로 나갈 수 있고 공부도 머리가 잘 트여서 잘될 수 있고, 또는 뿌리를 돋워 주니까 뿌리가 썩지 않으니 가지가 썩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크게 열려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르익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나무라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모두가, 삼라만상 대천세계 이 모두가 전부 공존하고 공용하고 있습니다. 공심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으니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란 말을 했죠. 그 한마디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붙어 돌아갑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둘이 아닌 까닭이요, 내가 있는 까닭이요, 나를 찾으면 나 자체도 없이 공했다는 까닭이요, 또는 둘이 아니게 이 세상이 공심하고 공용하고 공체로서 공식까지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음은 그 대가 없는 것이 한마음이요, 그 한마음은 부처라는 이름도 가질 수 있고 그 한마음은 결국은 길이죠. 그러니 우리 자체가 무엇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돌아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마음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문) 처음에 이 마음공부 할 때는 신심 있게 했는데 어떨 때는 마음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여여하게 공부해 나가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답) 우리의 근본 자리에는 그런 '약하다, 힘 있다' 이런 게 붙질 않아요. 만약에 이 진리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간다면, 지구도 그렇고 그런다면 거기에 무슨 힘이 없다, 있다 그게 붙을 수가 있나요? 그런 도리를 넘어서는 공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붙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약해질 수 있죠, 마음이라는 게. 고정되지 않고 항상,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고정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약하다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러겠죠. 그러나 약하다 하는 그 생각마저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따로 자기가 그냥 둘이 돼서 약한 거 따로 있고 약하지 않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한 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한군데다 넣고 한군데다 맡기고, 한군데서 나고 든다 하는 거를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직껏 살아오신 거 누가 살아오셨습니까? 상대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서 자기가 결정짓고 자기가 하고 그러고 자기가 살아왔죠. 약하든 약하지 않든 말입니다, 자기 운전수가. 기름을 조금 넣는 것도 거기요, 많이 넣는 것도 거기요, 가득 채운 것도 거기요, 또 기름이 없어서 못 넣는 것도 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전수 알아서 할 탓이에요, 모두가.

꿈에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불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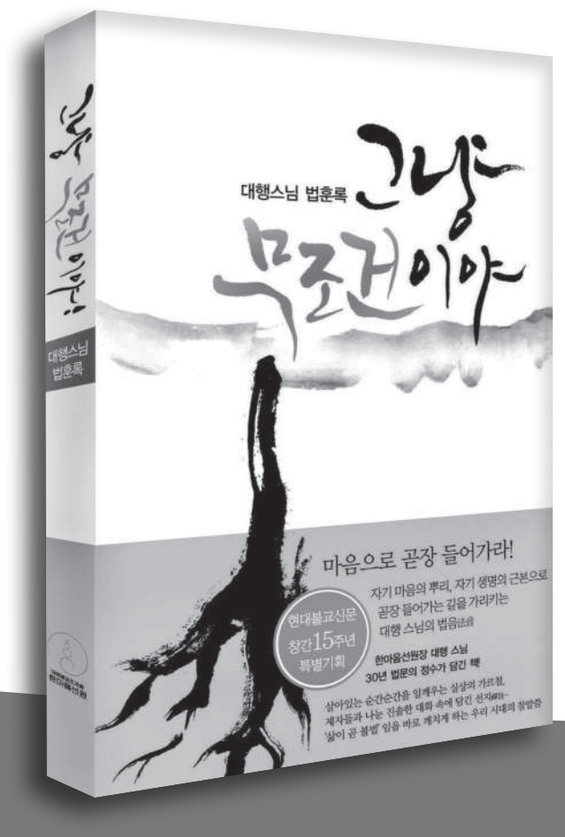
문) 저는 꿈을 자주 꾸게 되는데 자꾸 꿈에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불편해요.

좋은 꿈을 꾸면 좋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찜찜하거든요. 이렇게 꿈에 끄달리는 마음을 벗어나고 싶어요.

답) 당신이 당신을 못 보니깐 꿈에라도 모습을 해서 이게 공부거리를 줬으면 공부거리나 받을 것이지 왜 그 모습에 끄달리십니까. 아이, 부처님의 모습은 개로도 모습이 됐다가 돼지로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말도 됐다가 그냥 나무도 됐다가, 이렇게 자꾸자꾸 여자로 됐다가 남자로 됐다가 거지도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바뀔 적마다 탈을 할 겁니까. 붙잡고 늘어질 겁니까.

그러니까 꿈을 꿔도 그냥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리고 공부거리가 있어서 그걸 이해를 하면은 '아, 그건 그런 거구나.' 그러고 놓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해가 가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뿐이야.' 그러곤 그냥 놔 버려요, 그냥. 그러면 언젠가는 알아져요. 이거 사는 게, 전부 지금 사는 게 수시로 바뀌면서 가는 건데 다 붙잡을 거예요, 그걸? 환상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하고 가는 그 환상을 붙드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놔 버리세요, 용광로에 넣듯이.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한 해를 마무리하며|

'中道의 배'로 격랑 넘어서자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모든 시간은 변화와 함께 한다
한국사회 변화도 심상치 않아
변화의 깊이 · 넓이 더욱 커져

'패러다임의 전환기'인 현 상황
극복 여부 따라 흥망성쇠 결정

격동 변화 넘을 新사유 필요해
변화의 핵심 보는 깨달음 '연기'
연기 바탕한 중도 지혜가 절실

1969년 중부전선 DMZ의 겨울밤은 바로 공포였다. 눈보라와 칼 추위 속에서 철책선 군복무를 한 경험은 내 일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비무장지역의 GP를 철거하고 남북 군인이 함께 이를 확인하는 뉴스 영상을 보고 있으니 세월의 무상함과 무서움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시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공자는 흐르는 강물을 보고 세월의 흐름을 서글퍼 했고, 붓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깨달음을 보았다. 새해 기해년의 새 달력에 황금 돼지가 웃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시간을 측정하는 달력의 제작과 함께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태양계의 인간은 참으로 기이한 존재다. 바람 같은 시간을 태양의 빛으로 측정하여 자연과 자신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간의 바다'를 항해한다.

식물은 태양의 빛에 따라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낙엽을 떨구면서 겸손하게 사는데, 아마도 인간이 시간을 측정한 제일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서 나온 행위일 것이다.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나도 너도 아무도 못 봤지./ 그러나 나뭇잎이 매달려 떨고 있을 때/ 바람은 질러가고 있다.

위 시구는 영국의 여류 시인 로세티(C. Rosseti)의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에서 인용했다. 변화가 없으면 시간은 결코 지각될 수 없다. 모든 시간은 변화와 함께 온다. 그 변화는 사람을 혼란케 하고 고뇌를 일으키고 또한 망각하게 만든다. 시간은 인간 삶의 가장 큰 주제다. 인생은 시간에 실려 가는 삶의 지속이고, 그 시간은 무상하다. 고집멸도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가 이 변화 속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남쪽 대통령이 평양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위인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는 집회도 열린다.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그 변화는 깊이와 넓이가 매우 크고, 속도는 엄청 빠르다. 또한 변화의 풍향도 어지러워 방향도 가늠하기가 어렵다. 잘못하다간 엄청난 파고 속에 침몰하거나 부평초처럼 이리 저리 표류할 것이다.

지금의 시기를 학문적 용어로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달려 있음을 본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후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 현상 등은 과거에 우리가 착용했던 사유의 안경으로는 그 본질을 볼 수 없다. 이 격동의 변화 속에서 항해 지도를 만들 새로운 사유의 틀이 필요하다. 여기에 연기법의 위대성이 새삼 다가온다. 붓다의 연기법은 바로 변화의 핵심을 보는 깨달음이다.

이제 혼돈과 격랑의 무술년을 보내고 기해년을 맞이하고 있다. 엄청난 삼각파도의 격랑을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이 삼각파도 속에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격랑의 바다를 헤쳐 갈 배가 있다. 이 배는 바로 연기법을 질료로 하여 만든 붓다의 '중도(中道)의 배'다.

중도의 지혜를 이 세간에 펼칠 방편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때 기해년의 황금빛 돼지는 행복할 것이다.

特別기고

세첸 코리아(대표 용수)의 초청으로 방한한 아남툽텐 린포체는 12월 7~8일 국제선센터에서 로종수행법회를 진행한데 이어 12월 9~14일 백담사에서 '마음의 본성' 집중 수행을 개최했다. 집중 수행에 참여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이 자신의 수행 체험기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마음의 본성' 수행 여정 끝내며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어떤 괴로움이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쉼이 온다. 그렇지 않다면 온갖 괴로움에 짓눌려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고통의 소멸도 늘 경험한다. 아남툽텐 린포체는 자연스러운 고통의 소멸을 열반이라 하고 일상에서 늘 열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신다.

흔히 열반이라고 하면 먼 미래에 명상이나 뭔가 오랜 수행 끝에 얻을 수 있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린포체는 이번 생에는 도달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 경지를 인간적 체험으로 설명한다. 즉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분노나 아픔이나 고통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면서 놀라운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며 무시이래 빛나는 순수한 마음의 본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나름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또 묻는다. 린포체는 6일간의 수행 중 하루를 온전히 의문과 의심의 화두를 갖고 물음을 던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머리로 아는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 답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번 집중수행의 주제인 마음의 본성을 체험할 수 있는 3가지 방편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을 쉬는 것' · '의심을 갖고 묻는 것' · '헌신'을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기법 없는 기법이고 방편 없는 방편이다.

린포체는 마음의 본성을 체험하는 족첸 수행에 대해 재미난 비유를 들었는데 '건강을 위해 사람들은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땀흘리고 운동하고 요가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족첸 수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가 잠자고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순수자각, 알아차림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 또한 방편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붓다의 마음이라고 하면 멀리 느껴지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너무나 탁월해서 접하기 어려운 의식상태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의식도 본래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반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믿음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성 수행은 우리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 이미 완벽하기에 온 존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투쟁하고 노력해서 바꾸려하거나 초월하려는 마음,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것이다. 짜증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상호 의존적이며 연기적인 것임을 아는 것이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허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나 두려움에 휩싸여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삶이 달라지는 기쁨을 맛보며 지낼 것이다.

社說

조계종 정규직 전환 환영한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들어선 지 석 달가량 지났다. 그리고 종무원 평가를 마친 집행부는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발돋움을 위해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인사를 대폭 단행했다. 전보인사만 43명,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폭의 인사다.

그런데 인사발령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바로 무기계약직 종무원의 전원 일반행정직 전환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인사위원회는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무원 9명을 1월 1일자로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오랫동안 내부 노동처우 개선보다 외부 노동문제에 관심을 쏟아온 조계종이기에 이번 결의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간 조계종은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반사회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9년 만에 복직 합의서에 서명하고, KTX해고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하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불교계의 뒷받침이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불교계의 노력으로 사회노동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불교계 내부 노동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는 사회노동위원회에도 화두였지만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지난 9월에는 조계종 종무원들의 산별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번 무기계약직의 일반행정직 전환은 조계종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해년에 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다가오는 기해년, '화합'의 한 해 되길

2018년 무술년 한해도 5일 남았다. 본지는 올해 송년호에 한해 뉴스를 정리하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 초유의 불신임 퇴진'이다.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294일 만에 벌어진 일로 조계종 역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선거를 통해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됐고, 종단은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다.

그나마 한국의 전통 산사 7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올해 불자들을 가장 기분 좋게 한 뉴스일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보존 관리는 숙제이다. 특히 7곳의 산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사통합관리단' 구성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불교계 안팎으로는 많은 일들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겠고,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하는 것은 '화합'이다.

지난 수년 간 불교는 첨예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변화의 시기 이제 불교계는 화합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북 익산시는 2019년 기해년 시정운영 방향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선정했다. '구동존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하나가 되길 힘쓴다'는 뜻으로, 중국 부주석이었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한 말이다.

의견의 차이에 반목하기보다는 인정하고 화합하는 것은 바른 승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조로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은 소통과 화합의 한 해가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 것일까?"

◆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祕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祕法) 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1. 생전예수재는"왜"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2.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3.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측면에서알아두면도움되는주택풍수의좋은조건, 나쁜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책 자 안 내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 031)768-8414~6 |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 시간 이 자리가 모두 만다라”

2018 만다라 결산

2018년 한 해 동안 본지의 ‘만다라’에 소개된 주인공을 한 자리에 모셨다. 한 분 한 분 그 자체로도 충분한 만다라이지만 한 자리에 함께 하니 그야말로 ‘만다라’가 되었다. 만다라의 의미를 새삼 깨닫고 새기는 자리다. ‘2018년’이라는 한 편의 만다라를 회향하는 오늘, 다시 한 분 한 분의 지나온 자리를 되짚어 ‘2019년’이라는 또 한 편의 만다라를 준비한다.

〈편집자 주〉

정리=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윤후명 작가(72 · 시인 · 소설가)

-‘나’를 찾아 나선 문학 50년 … “불교는 우리의 이성이자 정체성”-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설가의 문학 속에서 화자의 자아로 살아왔다면 그 불교는 어떤 것일까. 시인이자 소설가인 윤후명 작가는 “나의 소설은 모두 불국토를 향한다”고 말한다.

김성규 교수(62 · 영남대 의과대학)

-대의왕 제자 인생 40년, 身心의 병을 살피다…“佛法은 마음의 암 치료하는 방사선”-

그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로서 암 치료에 평생 진력했다. 아울러 육신의 병 못지않게 중생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20여 권의 우리말 경전을 출간하는 등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

이학송 前 교법사(59 · 생명의 숲 국민운동 전문위원)

-청소년전법제일 부루나 존자 … “교육 불사가 곧 불교 ‘미래’”-

전법은 미래를 위한 일. 그 ‘미래’를 위해 단단한 원력을 품은 부루나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의 전법지는 ‘청소년.’ 군법사와 교법사로 활동하며 오랜 세월 교직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불심을 심고자 진력해온 이학송 前 교법사다.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前 육군대장)

-‘하심’으로 리더십, ‘소통’으로 일치단결-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리더십으로 유명한 그의 생활에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수행이 있었다. 40년 가까이 군에 복무하며 국가안보 일선에서 활약한 박 회장은 불자로서 ‘하심’의 리더십을 강조한다.

이연욱 불화장(62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7호)

-불보살과 함께 한 반세기, 천상 佛母 … “불모는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서원”-

무엇인가를 그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일의 시작이 아닐까. 그는 40여 년 동안 불보살을 그리며 부처님 세상에서 살고 있다. 5천여 폭의 불화를 3백여 사찰에 남겼다.

BTN불교TV 염불공양회

-시다림 염불공양, 보살 닮아가는 길 “오직 영가 왕생을”… 염불행자의 간절한 서원-

1년에 200여 회 시다림 봉사를 하며 불법의 요체인 생사의 의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이들이 있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BTN불교TV 염불공양회’다.

태고보현봉사단

-자리이타로 제주불교 이끄는 자비보살들 - “봉사는 번뇌 물리치는 수행”-

제주도를 불국정토로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모인 이들.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종무원장 · 지원) 산하 봉사신행단체인 태고보현봉사단이다.

최기영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통건축의 살아있는 ‘계보’…“언젠가 내가 들어와 살지도 모르죠”-

현대식 공법의 건물들이 대세인 오늘날, 나무를 손수 다듬고 기와를 얹어 집을 짓는 일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며 우리 건축을 잇고 있는 목수, 최기영 대목장. 그는 60여 년 동안 전국에 수 백 채의 불사를 남겼다.

선진규 법사(84 · 봉화산 정토원 원장 · 만해사상실천연합 대표)

-포교 또 포교, 여래의 심부름꾼 / 청소년부터 만해까지… 포교불사 60년 매진-

부처님의 심부름꾼을 ‘여래사(如來使)’라고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심부름이란 전법포교의 공덕을 말한다. 우리는 이제 그를 여래사라고 불러야 한다.

김민희 나무명상 대표(63 · 울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고문)

-“오로지 전법”… 울산불교 재가운동 大母, ‘3 · 3 · 3’으로 자기 단속… “수행은 나의 힘”-

울산 태화강 옆에서 나무명상 카페를 운영하는 그는 울산이 불법의 숲이 되길 기원하며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금순 제주대 외래교수(58 · 제주불교 전문 연구가)

-“4.3민중과 함께 한 스님들, 참 종교인 모델”-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항쟁에서 불교계의 피해와 희생이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제주와 불교에 대해 끊임없이 천착했던 연구자가 있기에 가능했다. 바로 한금순 교수이다.

한승원 작가 (79 · 소설가 · 시인)

-불교로 소설 쓰다 소설로 불교 썼다 … “부처님은 제 영혼의 스승이죠”-

등단 50년, 그는 이제 삶과의 이별도 서서히 준비한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별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삶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그의 글은 쉼 없는 성찰의 회향이다. 그 성찰은 그의 문학 50년의 변함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선원총림의 한 해 일정

B5
문화
특별전 'Mandala Festival of Art 魂'

B6
학술 · 문화재
2018 학술 · 문화재 결산

오늘도 사부대중이 만드는 '화엄세상' 빛난다

B1면에서 계속

없는 원소였으며, 그 원소의 근원지는 '부처님'이다.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

-독거 어르신 밑반찬 만들며 영그는 信心 / 노력봉사가 수행…"어르신 보길 부처님 같이"-

2000년 봉은사 신도들이 주축이 돼 시작한 '작은보시 큰자비 연등'은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오정순(64 · 인하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참회기도가 이끈 시한부환자 洗髮봉사/ 입원 후 불자는 외톨이… "불교는 어디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14년째 활동하고 있는 그는 365일 중 320일을 와상환자 머리 감겨주기로 보낸다. 1주일에 120명의 환자를 만난다. 매일 아침, 세발도구를 끌고 병원 9층부터 17층까지 순회하며 환자들의 머리를 감겨준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그에겐 환자도 부처다.

박범훈 작곡가 (70 · 조계종불교음악원 원장)

-우리 찬불가 찾아 나선 진감의 제자 / 佛心으로 시련 극복… "한국적 불교음악 완성 진력"-

국악이 '불교음악'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으며, 그 사실에서 출발한 음악가. 그래서 그는 우리 찬불가의 정체성을 찾고 찬불가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살고 있다. '붓다', '찬미의 노래', '부처님 오신날', '날마다 좋은 날' 등 우리 귀에 익은 찬불가가 그의 곡이다.

김춘식 불교문화 전문 해설사 (63 ·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수)

-성보에 담긴 佛心을 전하다-

'불교의 이해'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론 중 하나다. 그래서 불교와 불교문화재를 제대로 알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는 20여 년 사찰과 사지, 그 밖의 도량에서 불교문화를 해설하며 전법의 길을 가고 있다.

오명숙 (60 · 조계종 자원봉사단 1기)

-"봉사는 수행"… 오늘도 묵묵히 '자비행' / "여법한 삶 사는 게 전법"-

1995년 창립된 조계종자원봉사단 탄생의 주역이자 1기 단원인 그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사내(寺內) 울력과 목욕봉사, 따주기봉사, 급식봉사, 호스피스 등 봉사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군법당 불사 등의 군포교까지, 30여 년을 무주상보시와 이타행으로 살고 있다.

김행수(65) 영화감독과 **전무송**(77) 배우

-우린 '시네마 구법'하는 선재 도반 …"잘 만든 영화 한 편 전법이고 포교"-

오늘날의 전법은 미디어는 물론 예술과 학술, 교육 등 다양한 형식과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행수 감독과 전무송 배우는 '잘 만든 불교영화' 한 편을 위해 만난 도반이다. 둘은 "불교 창작물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청안 스님(52 · 헝가리 원광사 주지)

-한국 禪에서 '답' 찾은 헝가리 선재 … "헝가리에 한국 禪 전하고 있어요"-

헝가리 스님 청안 스님은 헝가리에서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스승이 그랬듯 제자는 헝가리에 한국식 전통사찰(원광사)를 짓고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갑숙 소설가(68덕 · 德山)

-불교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찾다 … "佛法이 주는 감동, 소설로 전하고 싶어"-

문학을 꿈꾼 지 50년, 그리고 마침내 소설 〈꺼지기 쉬운 빛〉으로 데뷔. 50년 만에 써낸 소설의 뼈와 살은 '체험의 불교'. 그가 체험한 불교는 어떤 것일까. 그의 소설이 궁금하다.

정분남(61 · 부산불교 삼보회 회장)

-반평생 신행의 키워드…'三寶守護', "포교는 수행이자 보살행"-

불법(佛法)에 귀의한 대중의 본분은 삼보수호. '삼보수호'를 신행의 평생 키워드로 삼은 그는 전국의 도량을 돌며 보이는 불사마다 손을 보태고 대중공양과 성불의 기도를 놓지 않고 있다.

이건열 동국대 야구부 감독(55)

-"야구도 인생도, 버리고 낮춰야 승리한다" /불교명상 통한 인성 함양, 바른 선수 양성 효과-

부처님 가르침으로 야구하는 이건열 감독은 동국대 야구부의 제2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공 하나, 타석 하나, 경기 하나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곧 번뇌가 된다. 그 번뇌를 벗어야 원하는 야구 할 수 있어"

NGO 희망씨앗 월드웨어 프리마켓 자원봉사자

-'더불어 사는 삶' 실천하는 희망불자들…"진정한 봉사는 힘들 때도 하는 것"-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각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의 문제가 어려움이다. 평범한 주부, 피아노 학원 원장, 교사였던 그들은 어려운 이 시대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다.

민병덕 前 국민은행장(65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三人行 必有我師', '돈'말고 '사람' 보라 / 相生, 성공의 지름길… "기업 · 조직 新성장동력 얻어"-

독실한 불자 금융인인 그는 현재 무보수로 핀테크 벤처기업 '올이프' 회장을 맡아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공부와 경륜을 사회에 회향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모두 만다라다. 풀잎 하나, 구름 한 점까지도 만다라 아닌 것이 없다.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다라임을 깨닫는 '오늘'이 만다라다.

사용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집수리봉사팀 팀장 (62 · 세기건축설비 대표)

-집수리 봉사하며 '마음 수리 바라밀'…"봉사는 저에겐 평생 '공부'였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는 봉사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다. 20여 년 어려운 이들의 낡은 집을 고쳐주었다. 3년 전부터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집수리봉사팀 '천수천안회'를 이끌고 있다.

문명대 교수(77 · 한국미술사연구소장 ·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미술 집대성 · 유적 발굴 선도한 개척자

'불교미술'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어온 그는 후대를 위한 수많은 이정표를 남겼다. 오늘날 우리 불교미술사학의 체계는 그의 부지런한 발과 손에서 만들어졌다.

장준동 변호사(57 · 법무법인 동연 대표)

-함께 사는 세상 꿈꾸는 '밥퍼 변호사' / "무고한 사람 없도록 최선"… 봉사는 나의 삶-

밥 짓고, 밥 나눠주고, 연탄, 김치 배달하는, 일명 '밥퍼 변호사'. 그는 변호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함은 물론 법정 밖에서도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다닌다. 그대는 자비보살.

유억근 (사)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 가족

-삼보회 인연 만다라 30년… 在家운동 '견인'… "출 · 재가 본분 다하면 갈등 없어"-

재가불교의 1번지 (사)대한불교삼보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부처님의 길을 밟는 선남자이다. 그 곁에는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수레의 바퀴처럼 굴러간다.

일광 스님(거창 삶의 쉼터 관장)

-지역민의 '休' 같은 '쉼터' 복지관장 / "출 · 재가 더 많이 '사회참여' 해야"-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상구보리하화중생하는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것으로 '위로'를 만들어간다.

희곡작가 **김숙현**(75) · 기업인 **배기수**(80) 부부

-佛緣만나 평생 '부부 도반'으로 … "말 두 마디에 불교 이야기 나오죠"-

한 생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빛깔은 달라진다.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에 도반의 인연을 더해 살고 있다. 각자가 지닌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허락 사경가 (71 · 고려사경문화원 원장)

-수행 · 전법 꽃 피운 250만 자 금빛 사경…"5mm 글자 안에 부처도 자신도 있어"-

사경의 공덕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화엄경〉 절첩본 81권 3회, 〈법화경〉 7권 7회, 〈금강경〉 80여 회, 〈지장경〉 2권 5회 사성. 30여 년 사경 공덕, 더욱 주목할 것은 그것이 모두 '금사경'이라는 것.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

-불교 교육 40년… 校庭의 '호법신장' / "인문학 활성화로 불교 발전에 여생을"-

그의 법명은 법해(法海)다. 불교의 정법구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다. 신심 넘치는 교법사로, 종립학교 교사로, 불교계 환경운동가로, 또 역사교과서 등 잘못된 불교인식을 바로잡는 학자이자 불교 지성인으로도 그 역할이 컸다.

서우담(81 · 교림출판사 대표)

-여래의 아난, 탄허의 우담 / 탄허 저술 출판 매진… 스승 가르침 세상에 알려-

석가모니부처님 곁에 아난이 있었다면 탄허 스님의 곁엔 우담이 있다. 그는 스승의 방대한 역경불사를 보다 많은 대중이 누릴 수 있도록 오로지 스승의 역경만을 출간하는 교림출판사를 세웠다. 또 하나의 칠엽굴이다.

마가 스님(57 · 현성정사 주지, 자비명상 대표)

-상처난 마음 찾아가는 '힐링 멘토' - "자비명상, '선업 쌓는 법' 깨닫는 수행"-

연기(緣起)에 일찍이 눈뜨고 대중의 마음을 살펴온 스님은 '힐링'을 일찍이 부처님의 글자로 시작했다. '자비명상'이라는 수행법으로 대중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 마음에 불법(佛法)을 심고 있는 것으로 성불의 길을 가고 있다.

아남툽텐 린포체(다르마타 재단 설립자)

-생활 속 마음챙김, 행복의 지름길 / 수행 통한 '자비' 발현, 사회 갈등 해소

티베트불교는 오래 전 서구에 널리 전파됐다. 이제 한국에도 티베트불교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 그 선봉에 아남툽텐 린포체가 있다.

부산 영도 대원사 ·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음성공양으로 하모니 일구는 선재도량…어린이 합창단으로 포교 새바람 주역-

수월관음도의 한 쪽에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선재들로 가득한 도량이 있다. 그 아이들은 불연의 씨앗들이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절에 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절로 이끈다.

안양소년원 봉사단체 안양계

-'소년부처' 키워낸 교정교화 어벤져스 / 교정전법 지원 절실… "불교 쉼터 필요"-

어느 시절 어느 곳이든 '소년'은 힘들다.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소년들이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지만 그렇지 못한 소년들도 있다. 그 소년들을 위해 나선 스님들이 있다. 스님들은 '안양계'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는 교정교화의 어벤져스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66)

-초기불교 한글 역경 견인한 '21세기 구마라집' / "초기는 나무 · 대승은 꽃… 佛法 구조 알아야"-

21세기를 넘어오면서 한국불교는 변화를 맞는다.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다. 초기불교 경전이 우리말로 역경 · 발간되기 시작한다. 현재 대중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말 초기불교 경전은 한 사람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전재성.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80)

-다시 부처님 시대 꿈꾸는 영원한 전법사 / '청보리' 운동 이끌며 포교…"진짜 불교 해보고 싶다"-

1970~1980년대 청소년불교운동을 일으키고 '청보리' 운동으로 포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는 이제 다시 부처님의 시절을 꿈꾼다. "불교,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우리도 붓다 석가모니의 일생 그대로, 진짜 불교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루가 모여 한 해 되고 천년, 백년 된다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㉔ 선원총림의 한 해 일정



새해 첫날인 '원단'은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사진은 2007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 모습.

천 년 전 당송시대 선종 사원(총림)에서도 정해진 한 해 일정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날은 새해 첫날인 원단(元旦, 歲旦, 年始 · 정월 초하루)과 하안거 결제일인 결하(結夏 · 4월15일), 하안거 해제일인 해하(解夏 · 7월15일), 동지(冬至)이다. 이것을 '4절(四節)' '4대 명절'이라고 한다.

선종사원의 4대 명절(四節)은 백장회해가 정한 백장총림의 제도였다. 이 가운데 결하일(結夏日 · 하안거 결제일)과 해하일(해제일)은 인도불교의 제도이고, 원단와 동지는 중국 세속의 풍습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밖에 불탄일, 성도일, 열반일, 달마조사 기일(忌日), 백장 선사 기일, 개산조사일도 중요한 날이다. 천자의 생일은 성절(聖節)이라고 하여 중요한 날로 삼았는데, 이것은 남송 이후에 도입된 것이다.

매월 정기적인 행사나 일정을 정리한 것을 청규에서는 '월분수지(月分須知)' '월분표제(月分標題)' 또는 '월진(月進)' 등이라고 한다. 정해진 매달 일정표인 동시에 '연중 행사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로서 북송시대에 편찬(1103)된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월분(月分) 항목이 없다. 그 당시에도 매달, 매년 정기적인 중요한 행사가 있었겠지만 별도로 항목을 두어 정리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남송 · 원대에 편찬된 청규인 〈총림교정청규총요(함순청규)〉(1274년 남송 말 편찬), 〈선림비용청규(禪林備用淸規)〉(1311년 元初 편찬), 〈칙수백장청규〉(1338년, 元 순제 원통4년), 〈환주암청규(幻住庵淸規)〉(1317년, 元 延祐 4) 등에는 '월분수지(月分須知)', '월분표제(月分標題)', '월진(月進)' 항목이 있다. 그런데 이 몇 개의 청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가 꽤 있다. 또 남송 이전부터 전해 오는 전통적인 것도 있고, 남송 · 원나라 때 신설된 것도 있다.

예컨대 "세단(歲旦 · 정월 초하루)에는 오갱종(五更鐘, 4시 起床을 알리는 종)과 판(板)이 울리면 대중들은 (佛殿에) 모여서 대비주(大悲呪 ·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염하며 황제의 장수를 기원한다." "매달 삭망(朔望,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대중들이 아침 죽(粥) 공양 전에 황제의 장수를 기원한다(祝聖)." 또는 "능엄단을 차려 놓고 능엄주를 외운다" 등등은 모두 남송 말, 원대에 생긴 것으로, 그 이전에는 없었다.

여기서는 〈칙수백장청규〉 '월분수지(月分須知)' 편을 바탕으로 기타 여러 청규를 참고하여 선원총림의 한 해 일정을 알아보았다. 날자는 음력이고 해설이 필요한 곳은 해설을 덧붙였다.

▲정월 : 1일(정월 초하루)은 세단(歲旦) · 원단(元旦)이다. 새벽 4시에 오경종(五更鐘)을 친다. 오경종은 기상과 예불을 알리는 종으로, 불전(佛殿 · 대웅전)에 향촉과 다과를 올린다.

정월 15일은 상원등석(上元燈夕 · 정월 대보름날 저녁)이므로 대비주(大悲呪)를 외우면서 황제의 수명장수 기원법회를 한다. 또한 매달 삭망(朔望 ·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대중들이 아침 죽(粥) 공양 전에 황제의 장수를 기원한다(祝聖). 정월 17일은 백장 선사(百丈懷海 · 720~814)의 기일(忌日 · 열반일)이다.

△해설 : 백장선사의 기일(忌日)임은 달마조사의 기일(忌日)과 함께 중요한 날이다. 달마는 초조이고 백장은 최초로 청규를 제정했으며, 율종으로부터 선종을 독립시킨 선종의 건설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선종 사원은 반드시 조사당에 달마, 백장 선사를 모신다.

▲2월 : 1일(초하루). 승당(僧堂, 선당, 좌선당)에 설치되어 있는 화로(火爐)를 철거한다(閉爐). 2월 15일은 부처님 열반일이다.

△해설 : 승당의 화로(火爐)는 음력 10월 1일에 설치하여 다음 해 2월 1일에 폐쇄한다. 화로를 설치하는 것을 개로(開爐)라고 하고 폐쇄하는 것을 폐로(閉爐)라고 한다. 개로일(開爐日)과 폐로일에는 주지(방장)의 상당법어가 있다. 이것을 개로상당(開爐上堂), 폐로상당(閉爐上堂)이라고 한다. 화로는 승당 복도 몇 곳에 땅을 약간 파고 설치한다. 연료는 숯인데, 숯불을 피워서 냉기(冷氣)를 제거하는 정도이다.

▲3월 : 1일. 당사(堂司, 유나)는 초단(草單 · 안거 방함록)을 꺼내서 승당 앞에 게시(揭示)한다. 한식(寒食), 청명일(淸明日)에 고사(庫司 · 총림의 살림 일체를 관리하는 소임으로 감원, 都寺)는 조사당과 여러 조사의 탑(塔)에 공양을 올리고 대중을 모아 경전을 외운다(諷經). 이 달(3월)에는 방(榜)을 걸어서 차순(茶筍 · 찻잎) 채취를 금한다(3월에는 아직 찻잎이 어리기 때문에 채취를 금하는 것이다).

▲4월 : 1일. 단과료(旦過寮 · 객실)의 문을 닫는다.

매월 일정 정리한 '월분수지'
결제 · 해제일은 인도불교 제도
새해 첫날(원단), 동지 중국 풍습

△해설 : 당송시대 중국 선원총림의 하안거 입방 마감일은 3월 말까지이다. 결제 15일 전에 마감했던 것은 총림의 다례(茶禮)와 다탕법(茶湯法, 차 마시는 법도) 숙지(熟知)를 위해서였다. 방부는 3월 말로 마감하고 4월 1일에는 객실을 폐쇄하고 방부를 받지 않는다. 4월 4~5일 사이에는 주지(방장)는 보설(普說 · 법문)하고 입방승들에게 차를 대접한다.

△해설 : '보설(普說)'이란 송대에 생긴 법문의 일종으로서 신도를 비롯하여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듣는 법문.

4월 8일은 불탄일(佛誕日, 浴佛日)이다. 고사(庫司, 오늘날 원주)는 흑반(黑飯)을 지어서 부처님께 올린다.

△해설 : '흑반'이란 천족초(天燭草)의 잎과 즙(汁)으로 마지(밥)를 청흑색으로 물들인 것. 오반(烏飯)이라고도 한다. 4월 초파일 즉 불탄일(부처님 생일)에는 특별히 부처님께 흑반(黑飯)을 올린다. 4월 13일에는 능엄회(楞嚴會)를 계건(啓建)한다.

△해설 : 능엄회를 계건한다는 것은 4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능엄주를 독송하는 능엄회가 시작됨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 거는 것을 말한다. 남송 말, 원대부터 선종 사원에서는 결제 2일 전에 능엄단(楞嚴壇)을 차리고, 능엄주를 독송하는 능엄회가 있었다. 이 담당자(소임)를 능엄두(楞嚴頭)라고 한다. 매일 불전(대웅전)에서도 대중들이 함께 능엄주를 염송했다. 능엄주를 염송하는 것은 기복(祈福)과 제마(除魔)를 위해서였다. 선종 사원에서 능엄회 유행은 남송 후기로서, 북송 때(1126년)까지는 없었다. 1103년 장로종색이 편찬한 〈선원청규〉에는 능엄회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 그런데 원대 중기인 1274년에 편찬된 〈함순청규〉에 처음 능엄회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고, 이어 1311년(원나라 초기. 1264년 원 건국)에 편찬된 〈선림비용청규(禪林備用淸規)〉와 1338년 편찬된 〈칙수백장청규〉에는 능엄회에 대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원나라 때에는 총림의 모든 의식과 행사에 능엄주와 대비주가 필수 염불문이었다. 능엄회의 기원에 대하여 〈선림비용청규〉 3권(1311년, 원나라 건국은 1264년)에는 진헐청효(眞歇淸了)가 보타산에 있을 적에 하안거 때 병승(病僧)을 위하여 보회향문을 지어서 외웠는데, 이것이 능엄회의 시작이라고 한다(불광사전 5493쪽 상단).

4월 15일은 하안거 결제일이다. 날씨를 보아서 승당 안의 난렴(暖簾 · 겨울용 커튼)을 걷어내고 량렴(凉簾 · 여름용 커튼)을 친다. 참고; 〈무문관〉 26칙에는 이승권렴(二僧卷簾) 공안이 있다.

▲5월 : 5월 5일 단오날. 조신(早晨 · 오전 9시)에 지사(知事)는 승당 안에 향을 사르고, 다두(茶頭)는 창포차(菖蒲茶)를 다리고, 주지는 상당하여 법문을 한다(단오상당). 또 청묘회(靑苗會, 풍년을 위한 기원회)를 계건(啓建 · 풍년을 위한 기원문을 내다가 건다)하며, 당사(堂司, 유나)는 모든 요사의 요주(寮主, 요사 책임자)에게 청묘회에서 독송하게 될 경단(經單 · 경전 명단)을 알려 준다. 직세(直歲 · 당우 관리 담당 소임)는 모든 곳에 누수(漏水)가 없는지 살피고 물길을 정비한다. 방장은 모든 요사와 탑두(塔頭, 해당 사찰의 고승부도)에 나아가 차를 올리고 보살핀다. 승당 안에 문장(蚊帳 · 모기장)을 친다.

△해설 : 단오 때는 창포차를 달여서 마신다. 일반에서도 단오 날에는 머리에는 창포 꽃을 꽂고, 또 창포물로 목욕을 함. 이 때부터 승당 안에 모기장을 친다. 당시 모기장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혹시 굵은 삼배가 아닐지. 경단(經單)이란 법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강설에 쓰일 경전의 이름을 고지해 주는 쪽지,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다.

▲6월 : 1일. 더위가 대단할 경우 수좌는 선당의 좌선판(坐禪板)을 치지 않는다.

△해설 : 좌선판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더워서 좌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초복이 되면 유나가 제조(提調 · 지휘 감독)하여 선당의 장련상(長連床 · 좌선상)에 깔았던 자리를 꺼내서 먼지를 털고 햇볕에 쬔다.

▲7월 : 초순에 유나(維那)는 우란분절 때 간경(看經) · 염송(念誦)할 경전을 정하여 모든 요사(寮舍)에게 통보한다(주로 〈부모은중경〉을 독송함). 미리 중재(衆財 · 대중들로부터 각출하는 것)를 거두어서 우란분절 때 아귀에게 공양시킬 음식을 마련한다. 7월 13일에는 능엄회를 해산한다.

△해설 : 능엄회는 4월 13일에 시작한 능엄회를 해제 2일 전에 해산하는데, 남송 후기에 생긴 것이다. 8월 15일은 하안거 해제일이다. 당일 밤에 우란분회를 설치하고 경전을 외우고 아귀에게 시식(施食 · 공양을 베풂)한다.

▲8월 : 1일. 단과료(旦過寮 · 객실) 문을 다시 연다.

△해설 : 동안거를 대비하여 객승 즉 방부를 받기 시작한다는 뜻. 지난 5월에 쳤던 승당의 모기장을 거두어들인다.

▲9월 : 1일. 유나의 감독 하에 승당의 창문을 다시 바른다. 량염(凉簾 · 겨울용 커튼)을 내리고 난렴(暖簾 · 겨울용 커튼)을 친다. 9월 9일 중양일(重陽日) 조신(早晨 · 아침 9시)에 지사는 향을 사르고 산수유차(茱萸茶)를 달인다.

△해설 : 9월 9일 중양절에 산수유 열매를 따다가 차(茶)를 담가서 마시면 사기(邪氣)를 물리친다는 속설이 있다.

▲10월 : 1일. 승당(僧堂, 禪堂)에 화로를 설치한다. 설치 후에는 상당법어가 있다. 이것을 개로(開爐, 화로설치) 상당이라고 한다. 방장의 대상간(大相看 · 접견)이 있다. 10월 1일에는 객실을 폐쇄한다(동안거 입방은 15일 전인 9월 30일로 마감한다). 10월 5일은 달마조사의 기일(忌日)이다.

△해설 : 10월부터 기온이 내려가므로 승당에 화로를 설치한다. 철거는 다음해 2월 1일에 한다. 대상간(大相看)은 많은 대중들과 만남을 뜻하는데, 특히 10월 1일 대상간(大相看)은 입방하고자 하는 납자들을 한꺼번에 모두 면접하는 것을 가리킨다.

▲11월 : 동짓날이 되면 고사(庫司, 감원, 副寺)는 미리 자과(糍果 · 버무려서 만든 떡의 종류)를 준비한다. 방장은 동안거에 앞서 대중들에게 점심(點心)을 청한다.

▲12월 : 8일은 성도일이다. 고사(庫司, 감원, 副寺)는 미리 홍조(紅糟 · 팥죽)를 만든다. 세말(歲末 · 연말)에는 여러 가지 장부(帳簿)를 마감, 정리하여 주지화상에게 올린다(1년 수입 지출을 총결산하는 것). 〈끝〉

〈민족사 대표〉



“몸과 감정, 마음 다스리면 나 둘러싼 현실도 바뀐다”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강명희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 기본 수행법 현대적 변용한
대승 위빠사나 명상법 12가지

욕심내고 화내고 안달복달하며
흔들리는 마음 다스리는 5정심관

한 달에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익히는 12가지 명상법 소개해

2,600년 역사를 지닌 불교에 수행법은 많지만, 명상에 입문하는 초심자가 모두 행하기는 어렵다. 20여 년이 넘는 수행 경력에 불교 교학까지 겸비한 강명희 교수가 초심자에게 꼭 필요한 수행법만 따로 가려 뽑고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12가지 명상법으로 정리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익히다보면 몸과 감정, 마음과 관념을 다스리게 되어 내가 바뀌고 나를 둘러싼 현실도 바뀌게 된다.

오랜 역사를 지닌 불교의 수행법은 매우 많지만, 남방의 소승불교의 전승과 북방의 대승불교의 전승 모두에 공통되는 수행법은 5가지인데 이를 ‘5정심관(五停心觀)’이라고 한다. 5정심관은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연기관(緣起觀), 수식관(隨息觀), 계차별관(界差別觀)인데, 계차별관(界差別觀) 대신 염불관(念佛觀)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5정심관을 이루는 각각의 수행법은 욕심내고, 화내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잘못된 관념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마음의 허물을 다스리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불교, 아비달마, 대승 유식 등 불교의 수행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20여 년 이상 수행을 통해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저자 강명희 교수는 현대인이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 5정심관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12가지 명상법을 개발, 전파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명상수련원 백화도량의 초심자용 수행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음해 정리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익히는 12가지 명상법은 명상에 입문하는 초심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명상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12가지 명상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몸-느낌-마음-개념〉 순으로 구성됐고, 이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문 몸관찰, 2문 부정관, 3문 점관찰은 몸을 안팎서 관찰하는 것이다. 1문 몸관찰은 마음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한 것이고, 2문 부정관은 몸에 갇혀 있는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다. 3문 점관찰은 외부대상인 물질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는 것으로, 외부의 점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를 보고 너를 보는 수행이다.

4문 느낌관찰, 5문 음악명상, 6문 촛불명상도 서로 연결돼 있으며, 느낌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7문 만트라 명상과 8문 마음관찰은 마음으로 직접 들어가는 문이다. 만트라 명상은 거친 가짜 마음들을 효과적으로 녹이는 명상법이고, 마음관찰은 마음의 핵심인 생각 자체를 보는 수행이다.

9문 걷기명상과 10문 자연명상은 일상과 자연을 직접 만나며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특히 자연명상은 땅, 물, 태양, 바람, 허공 등 자연의 여러 요소를 이용해 나를 관찰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익히는 수행이다. 자연명상을 잘 익히면 대상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11문 수식관은 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에 좋은 수행법이다. 12문 자비관은 앞의 11가지 수행법을 익히며 외부가 내부가 됨을 알고, 내가 수행을 통해 얻은 것을 나의 또 다른 면인 대상에게 돌려준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현실적으로 수행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12가지 명상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수행할 때 겪는 여러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도 〈묻고 답하기〉 코너에 상세히 설명한다. 12가지 명상을 통해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고 잘못된 견해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현실에서 내가 달라지고 내 주변이 변하는 참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름답고 따뜻한 영혼의 울림 에세이로



그대로 행복하기

일감 스님 펴냄/문학의 문학 펴냄/1만 4500원



사회 각계각층 인사 만나 나눈 대담집
불교 TV 프로 〈내비둬 콘서트〉 바탕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인 일감스님이 나이와 직업, 종교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바로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하게 빛나는 존재의 자리, 행복한 모습임을 밝혀가는 대담집을 펴냈다.

이 책은 일감 스님의 화두인 그대로 ‘내비둬’를 삶의 현장서 풀었다. 내용은 불교 TV서 100회 방영된 〈내비둬 콘서트〉를 바탕으로 방송서 제대로 전달치 못한 내용과 근황 등을 소개한다.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일감 스님이 묻고 여러 지성과 예술가, 그리고 삶의 장인들이 답하는 행복에 대한 탐구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그대로 놓아두어도 절로 자라고 행복하고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또한 대담자들이 진솔하게 펼쳐놓는 열정적인 삶의 모습들에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느낀다.

나무는 언 땅에 발을 묻고 눈바람을 견디면서 봄에 피울 꽃을 안으로 장만한다. 남극의 황제펭귄 수컷들은 새끼와 알을 지키기 위해 영하 60도의 혹한을 허들링(huddling)으로 체온을 나눈다. 나무와 새들 뿐인가. 오늘 지구라는 작은 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묻는다면 몇이나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일감 스님의 화두 〈내비 둬!〉는 이 시대의 지성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비쳐준다. 꽃은 아름답지만 나무의 고통이 낳은 것이요 수컷 펭귄은 긴 고통의 날을 겪었지만 어미와 만나는 새끼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렇다. 일감 스님은 아주 낮은 음성으로 그러나 따뜻하게 영혼의 울림으로 고통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고통이 있음을 들려준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시대의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나누어주는 일감 스님이 고맙고 고맙다.

일감 스님이 내비둬 콘서트를 통해서 만나본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존재의 의미와 열정을 지니고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의 구도자들이었다. 대담집을 읽다보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두어도 저절로 완전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빛나는 삶을 견성하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언제나 여여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본래 면목을 바로 보고, 날아가 버린 파랑새를 뒤쫓듯이 행복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서 멀리멀리 헤매지 않아도 된다. 각계의 인물들이 독존의 자리에서 찾은 행복한 삶의 말씀들은 영혼을 울리는 종소리처럼 깊고 그윽하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스스로 물어봤어요. 왜 내가 행복할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돈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고, 직장도 괜찮고, 가정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는 큰 도전도 없고, 편안하게 주말되면 TV 보는 그런 식의 생활만 계속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행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런 시절을 ‘고통스러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운동을 하면 그 고통들은 ‘행복한 고통’이었어요. 고통 속에서 행복을 느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김기중 사이클리스트)

“어린아이가 물어보죠. 어른들한테 무섭지 않냐고. 어른들은 모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모자가 뭐가 무섭냐고 대답했죠. 예술도 똑같아요. 어린 아이가 뱃속의 코끼리를 그렸듯이 그리는 게 예술가인데 그대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렁이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어느 쪽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아! 맞아. 구렁이 뱃속에 코끼리를 그린 걸 보고 씨익 웃겠죠. 재미있고. 그런데 그걸 모자라고 말했던 건 반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왜 저걸 몰랐지? 저걸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세계. 그 세계를 저희가 열려고 하는 것이죠.” (육근병 설치미술가)

“우리는 음악이 시간을 균등하게 잘랐잖아요. 시간을 균등하게 잘라가면서 연주하는 건 훈련의 결과예요. 그러나 저는 이게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결과로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몸이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게 길들여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장해제해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놓고 그대로 아무것도 걸리지 않게” (임동창 풍류피아니스트)

이 책의 저자 일감 스님은 책 속에서 자연의 존귀함도 말한다.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위에 있는 것 같고 사람만이 최고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자연이 없고 사람 외에 다른 생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온 우주 법계가 한 점의 가치라도 온전하게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부처님과 역대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동물들, 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들까지도 다 한생명이 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따뜻한 눈길로 동물들을, 자연들을, 식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한 일감 스님은 자비심에 대해서도 어떤 종교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백화점이라 할만큼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목적은 내 자신의 괴로움도 해결하고, 주변 이웃과 사회, 어쩌면 온 우주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먼저 가진다면, 종교보다 더 우선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라고.

김주일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최종남 외/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39 송시의 선학적 이해
박영환/양장/536쪽/27,000원

40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양장/312쪽/17,000원

41 불교교육론
이송곤/양장/528쪽/27,000원

42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양장/328쪽/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보석, 만다라 속으로

'MANDALA FESTIVAL OF ART 魂' 展

봉은사 보우당 12월 26일~2019년 1월 5일

'루비 만다라', 금 · 은 만다라 30여 점 첫 선

'짐바브웨 부처님' 등 새로운 불교미술 선보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보석과 만다라가 만났다. 석보차박물관(관장 오흥덕)은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5일까지 서울 봉은사 경내 보우당에서 'MANDALA FESTIVAL OF ART 魂' 展을 개최한다.

화려함의 상징인 보석을 예술의 소재로, '소유'의 대상이 아닌 '공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불교문화와 차문화를 연구해온 오흥덕 관장이 불교미술의 만다라와 다구, 조각상 등에 보석을 접목시킨 '리뉴얼아트'를 선보이는 전시다.

깨달음의 신성함을 아름다운 빛으로 표현한 '루비만다라', 까치호랑이 도판(도자기 판에 그린 그림), 루비칠보 장식 은다구, 사파이어 콜라보 조각 등이 소개된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금과 은으로 그린 만다라 30여 점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오 관장은 '인내'와 '정수'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다. 오랜 시간을 거쳐 탄생하는 보석과 법의 정수인 불교에서 시작했다. 보석을 부의 척도나 사치의 대상이 아닌, 아름다움의 근원으로 바라보았고, 새로운 가치의 보석을 깨달음의 정수로 수행하며 그린 그림 만다라, 생명력을 지닌 짐바브웨 조각상, 수많은 담금질과 두드림으로 탄생한 은다구와 다기,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까치호랑이 등에 접목했다.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 공력을 오롯이 간직한 만다라와 영롱한 보석의 만남으로 탄생한 새로운 만다라 '루비 만다라'는 만다라의 신성함에 보석의 아름다움을 더해 더욱 깊은 만다라의 세계를 보여준다.

▲'검은 영혼의 신비'로 불리는 짐바브웨 조각상은 루비와 만나 새로운 부처로 탄생했다. 조각상의 주인인 아프리카 쇼나 부족은 돌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왔으며, 조각물을 돌 안에 깃든 영혼과의 교감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에서 탄생한 조각상에 루비를 더해 탄생한 '짐바브웨 부처님'은 기존의 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불상으로, 종교적 상징물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현대적 불교미술로서의 의미를 함께 보여준다.



깨달음의 신성함을 표현한 '루비만다라'



짐바브웨 부처님1



짐바브웨 부처님2

▲우리에게 친근한 까치호랑이 도판에서는 호랑이의 두 눈에 커다란 사파이어를 넣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호랑이는 사냥을 나갈 때 눈에는 등잔만한 불을 켜고 산천이 흔들리도록 포효했다는 옛말에서 비롯됐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호랑이를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 모두의 안녕과 성공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수많은 담금질과 두드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 마침내 완성된 은다구에는 보석이 면류관처럼 올려져있다. 은은 예로부터 몸에 지니면 심신이 안정되며, 나쁜 기운을 쫓아 몸을 가볍게 한다고 해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다. 이러한 은을 소재로 한 다기 컬렉션은 은빛 찬란한 다기와 빛나는 보석의 융합으로 한층 더 세련미를 더하며, 미술로서도 빛난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오 관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유'가 아닌 '공유'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대중의 삶에 만다라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 궁극의 만다라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수많은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그 속에서 참 나를 찾아간다는 게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새로운 불교미술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 물질만능시대에 화려한 유혹에 끌려 스스로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공유와 공존의 필요성을 알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픈 소망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031)3218-4800

사우디아라비아서 만나는 한국 역사와 문화

중동 최초의 대규모 한국문화 특별전

'The Enchanting Journey to Korean Civilization'

'한국문화로 가는 매혹의 여정'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박물관

12월 19일~2019년 3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2월 19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국가유산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특별전 'The Enchanting Journey to Korean Civilization(한국문화로 가는 매혹의 여정)'을 개최한다.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우디 관광국가유산위원회와 함께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이에 대한 교환전시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in Riyadh)에서 개최한다. 특별전은 중동 지역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최초의 특별전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이다. 신라시대 '서봉총 금관(보물 제399호)' 등 경주 출토품을 비롯하여 범종, 향완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의식구 등 한국문화의 특징을 대표하는 문화재 총 260건 557점을 선보인다. 박재완 기자



백제 건축은? '검이불루 화이불치'

특별전 '검이불루 화이불치 백제의 집'

한성백제박물관 12월 21일~2019년 2월 24일

백제시대의 의 · 식 · 주를 조명하고 있는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이인숙)이 1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특별전 '검이불루 화이불치 백제의 집'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2년 4월 개관기념으로 백제 사람들의 의복문화를 조명했던 특별전 '백제의 맵시'와 같은 해 겨울 백제 사람들의 먹거리와 식생활을 주제로 했던 '백제의 맛'에 이은 특별전이다. 백제시대의 주거와 건축문화를 집약한 발굴유물 550여 점을 전시한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편에는 백제 궁궐의 건축미를 위와 같이 적고 있는데, 백제 건축문화의 미의식을 대변하는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삼국사기〉가 적고 있는 '검이불루 화이불치'의 백제건축을 조명하는 전시로 백제의 왕도인 한성(서울), 웅진(공주), 사비(부여)와 왕궁이 있었던 금마저(익산)의 주거지와 건물지가 소개된다. 백제 왕도는 백제 최고의 건축기술과 양식이 집중된 핵심 지역이다. 따라서 백제 왕도를 통해 백제 사람들의 주거와 건축문화를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왕궁'이다. 왕궁은 최고 지배자인 왕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이자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무공간이며 신성한 의례 공간이다. 서울 풍납동토성 등 백제 왕궁유적에서 발굴된 건축부재와 생활용품이 전시된다. 특히 풍납동토성 안 풍납동 197번지(구 미래마을부지)에서 발굴된 마-1호 건물지의 기와를 모아 백제 한성의 기와지붕을 연출한다.

▲2부는 '사원'이다. 백제는 불교가 번성했던 나라였다. 사원은 백제 건축기술과 공예문화가 집약된 백제문화의 보고(寶庫)다. 부여와 익산 지역에 소재한 유적을 중심으로 사원 건물의 기초다짐부터 지붕에 이르는 건축구조를 자세히 소개하고, 더불어 사원의 일상을 조명한다. 사원 유물 중에는 현재까지 완형이 복원된 치미(鴟尾) 중 가장 오래된 왕흥사지 치미가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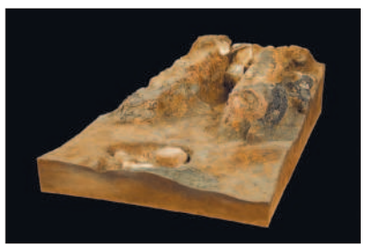
▲3부는 '가옥'이다. 가옥은 선사시대 이래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운 '움집' 형태였다. 백제 한성기의 대표적 가옥 형태인 '육각형 집자리'를 재현하고, 최근 보존처리한 풍납동토성 현대연립부지 가-3호 집자리의 부뚜막을 최초 공개한다. 또한 풍납동토성 동성벽 밖에서 발굴된 우물 목부재를 전시하여 백제시대 우물을 복원해본다. 이외에도 부여 백제문화단지에 백제 건축물 재현을 전담했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이 만든 '능사(부여 능산리 절터)5층목탑'과 '천정전(백제 대형건물)' 건축모형도 선보인다.

특별전시회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전시 연계 초청강연회가 진행된다. (02)2152-5837

박재완 기자



부여왕흥사지 치미.



서울 풍납동 토성 부뚜막.



최기영作 능사오층목탑 모형.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iikukak.com



지난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재 이후 관련 실무진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불복장 작법의 시연 모습. 보유단체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다.


20년 만에 복원 완료된 미륵사지 석탑 해체 당시 모습. 콘크리트 185t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체해서 복원했다.

한국불교문화 우수성 세계에 알리다

2018 학술 · 문화재 결산

韓산지 승원, 세계유산 등재 쾌거
'산사통합관리단' 설립 향후 과제
불복장작법,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미륵사지석탑 20년만에 수리 완료
도난 성보문화재 환지본처 이어져

대행선 선양 위한 最大 학술상 제정
14년 소장학자 지원 사업 마무리돼
전법학 산실 불광硏 해산 '아쉬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 무술년 한 해 문화재 · 학술 분야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문화재 분야에서는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경사들이 많았다.

韓불교문화, 세계로 세계로

대표적인 것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7곳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13개의 세계유산을 갖게 됐으며, 불교 관련 세계 유산은 '석굴암 · 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등재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산사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산사의 종합정비계획 마련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산사 내 건물 신축 시 세계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7곳의 산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사통합관리단' 구성 역시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남았다.

불교 유형 유산뿐만 아니라 무형 유산에 대한 관심과 평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일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등회는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에 개최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불상과 불화 내부에 불교 관련 물목들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것도 큰 성과다. 불복장 작법은 봉안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 · 불화에 신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복장 작법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가 인정 예고됐다. 불복장의식보존회는 평생 불복장 작법 전승에 매진해 온 무관 · 경암 · 수진 · 승호 · 도성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설립됐다.

성보 복원 · 환수 이어져

성보 복원과 도난 성보 환수도 올해 문화재 분야에서 눈길을 끌었던 이슈들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6월 20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수리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과 조사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일제강점기 최악의 문화재 수리 피해 사례로 손꼽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998년 해체 보수가 결정됐으며, 20년간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작불사였다.

해체를 위해 흉물스럽게 덮여있던 콘크리트 185t을 수작업으로 제거했으며, 이후에는 3D스캐닝을 통한 해체 전후 부재별 형상 정보를 확보하고 석탑의 상태 진단과 구조 해석이 이뤄졌다. 복원은 6층까지 부분복원을 진행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12월까지 가설시설 철거 및 주변 정비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된다. 도난 · 유출된 성보들의 환지본처도 이어졌다. 지난 4월 13일 조계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서 미국 경매를 통해 환수한 운문사 칠성도를 공개했다. 1950~60년대 도난된 것으로 알려진 운문사 칠성도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경매시장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모니터링 중 칠성도 1점을 발견해 조계종에 알렸고, 종단은 발견된 칠성도의 원 봉안처가 운문사이며, 화승 위상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 운문사, 정부기관은 경매를 통한 환수를 진행했다.

또한 유사한 형식으로 봉은사 시왕도가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5월 16일 공개 기념 행사가 열렸다.

시작과 마지막 교차한 학계

'원효'와 '4차산업'이라는 대형 이슈가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불교학계는 교학 등의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올해 불교학계 최대 규모의 학술상인 '묘공학술상'을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묘공학술상'은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2명에게는 각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하며, 공모를 거쳐 내년 7월 대상 수상 논문이 발표된다.

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학술 지원사업과 연구원도 있었다. 지난 2004년부터 이뤄진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은 올해 15회 공모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의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미출간된 박사논문 · 번역물들을 총서로 출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출간이 끝나면 지원사업은 최종 완료된다.

소장학자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젊은 학자들의 활동 영역 하나가 줄었고, 〈열반경 연구〉 · 〈불교의 중국정복〉 등과 같은 중요한 번역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전법포교학 정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불광연구원이 올해를 끝으로 해산하는 것도 불교학계의 큰 손실로 남았다.

"환성 지안 사상·가르침 통도사서 계승돼 왔다"

통도사 12월 14일 특별학술세미나 개최

산내 암자 백련암 중수
주석하며 가르침 전해
법맥, 통도사서 이어져

조선 후기 임제법통의 전승자이자 선과 교의 융합을 실천한 환성 지안(喚惺 志安, 1664~1729) 스님의 법맥이 통도사에서 전통 계승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14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한국불교 법맥의 원류 환성 지안과 통도사'라는 주제로 특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환성 지안 스님의 이력과 생애를 소개하고 통도사에서 법맥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동국대 교수는 "환성 스님의 직제자인 설송 연초(1676~1750) 스님은 통도사에서 오래 주석했고, 또 그 제자인 응암 희유 계통이 통도사에서 환성의 법맥을 이어갔다"며 "설송 스님을 매개로 환성의 편양파 선맥과 사명파의 교법을 함께 계승하는 통합적 법맥 인식이 통도사에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환성 지안 스님이 통도사에 주석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연이어 나왔다.

김종진 동국대 교수는 "통도사 백련암 관련 기문에는 환성 지안이 백련암을 중수했으며 주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환성 지안 스님이 사용하던 송낙과 친필의 시 현판 등 여러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며 "유물들을 볼 때 환성 지안이 통도사에서 수행했고 그 문도들이 통도사를 중심으로 스승의 사상을 전파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성 스님은 조선 후기 최대 불교 계파인 청허계를 대표하는 선사였다. 환성 스님의 유풍을 계승한 통도사는 환성 문파의 사상적 종찰"이라고 말했다.

환성 지안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이자 조선불교 3대 순교 성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허휴정의 법손으로 편양언기, 풍담의심, 월담설제, 환성지안으로 조선불교 법맥이 이어진다.

평생 대중 교화에 힘써왔던 환성 스님은 금산사에서 화엄산림법회를 개설했고 1725년에는 1400여명의 대중이 모여들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반란 혐의로 제주도에 유배됐으며 법랍 51세, 세수 66세에 입적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그동안 통도사와 환성 지안 스님과의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발굴하고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학술세미나를 마련했다"며 "법고창신의 자세로 활발한 학술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수행자에겐 법맥은 진리이자 생명이다"며 "통도사와 환성 지안 스님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이번 특별 세미나는 앞으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는 12월 14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한국불교 법맥의 원류 환성 지안과 통도사'라는 주제로 특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박재완의 PhotoEssay



生이여…

누가 놓고 갔을까
이 뜨거운 한숨을
이 무거운 시간을
작은 촛불 마다
켜켜이 생은 쌓이고
뜨거운 촛농은 법문처럼 떨어진다
두 손을 포개
겨우 열 개의 손가락을 만들고
두 눈을 감아
겨우 촛불을 끄고
生이여…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⑰ 와사풍의 치료와 예방법

와사풍, 과로하면 누구든 걸린다

와사풍은 어떤 사람들에서 잘 생길까? 야근하거나 새벽 출근하는 사람에서 흔한 편인데 대개 과로로 인해 몸이 허약해진 상태이거나 혹은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질병을 오래 앓아 쇠약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를 받아 짜증이나 화를 내거나 시기, 질투 등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젊은 여성, 갱년기 여성에게도 잘 생긴다. 또 임신 중인 여성에게도 잘 생기는데, 임신으로 인해 태아에 영양을 공급해 주느라 기와 혈이 부족하고 피로하기 때문이다.

와사풍은 위장과 연관이 있다

와사풍은 음식 문제로도 생길 수 있다. 얼굴에 생기는 병은 거의 위장의 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기가 돌아다니는 통로를 '경락(經絡)'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얼굴로 많이 지나가는 것이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으로서 위장 경락이다. 그러므로 위장 경락의 기가 약한 상태에서 과식하거나 찬 바람, 찬 음식 등을 접하게 되면 와사풍이 생기기 쉽다. 실제로 와사풍 환자 중에는 비위장이 허약한 사람,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이 많다. 음식에 체한 뒤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위기능에 장애가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가진 사람들이 와사풍에 걸리면 회복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마비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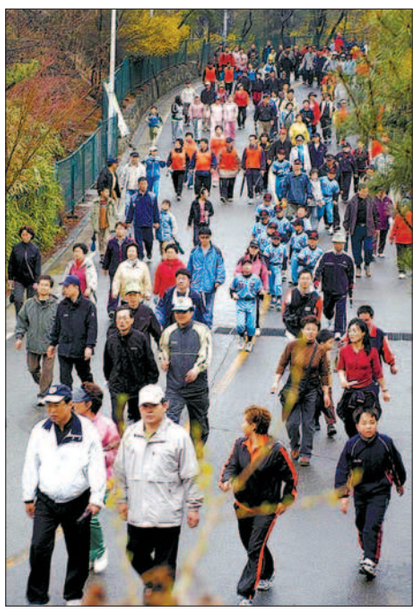
침과 전기침, 적외선 치료와 함께 한약을 투여한다. 경락을 순행하는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고 마비된 신경에 자극을 주며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하므로 회복을 빠르게 하고 후유증을 줄여준다.

얼굴을 따뜻하게 해야 하므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한 뒤에 얼굴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 이마, 눈 밑, 코 옆, 입술주위와 뺨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다. 얼굴과 머리에 있는 경혈에 지압을 하거나 껌 씹기도 좋다. 마비되어 완전히 감기지 않는 눈에는 안대를 해야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결막염과 외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와사풍이 온 경우에는 특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싸우거나 말다툼을 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짜증이 나면 열이 오르고 기가 막히게 되어 와사풍을 일으킨 것이다.

안면마비는 치료가 잘 되나?

일반적으로 발병 후 48시간 내에 증세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가 평균 7~10일째부터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6~8주 사이에 회복된다. 발병한 지 2, 3일 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효과적인 치료가 늦었거나 초기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 예후가 좋지 못하다. 환자의 30% 정도에서 만성적인 후유증이 남는다.



와사풍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허약한 건강상태가 주원인
침 · 온수찜질 · 마사지 지압
껌 씻기도 예방 · 후유증에 효과
마음 차분히 하는 것은 기본
발병 후 신속한 치료가 관건

후유증이 있게 되면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말할 때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여 우울증으로 발전해가는 경우도 있다. 치료가 잘되고 안 되고는 손상된 신경의 범위에 달려있지만 발병 후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가 크고 마비 정도가 심한 경우, 미각과 청각 이상이 동반된 경우, 귓뒤나 얼굴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임신 중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늦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안면마비가 온 뒤에 생기는 후유증

웃거나 말할 때 얼굴이 비뚤어지고 떨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덜 감기는 상태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밖에도 눈과 입 주변의 떨림, 눈물 감소, 미각장애, 청각장애, 청각과민, 이명 등의 후유증이 있다.

또한 '악어의 눈물 증후군'이라는 후유증도 있다. 음식을 먹을 때 비정상적으로 눈물이 나오는데,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데서 따온 명칭이다.

그밖에 어떤 근육을 움직이려고 할 때 엉뚱한 근육이 함께 움직여지는 증상이 있다. 예를 들면 이마의 주름을 잡는데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입을 '우-' 하는데 눈이 감기거나 하는 것인데, 안면신경 섬유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잘못 연결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와사풍을 예방하려면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과로할 경우 누구든지 와사풍이 올 수 있고, 안면마비 환자의 약 10% 정도는 평균 10년 정도에 재발된다.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으려면 과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은 추위에 직접 노출되긴 하지만 우리 몸의 양기가 모두 올라오는 곳이어서 찬 기운을 막을 수 있는데, 질병을 앓은 뒤나 과로 등으로 몸이 허약해진 상태에서는 양기가 약해져 있기에 찬 기운을 막을 수 없어 안면마비가 생기는 것이다.

양기가 허약해지지 않아야 면역력이 유지될 수 있으니 평소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다.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늘 섭취하면서 육식을 꾸준히 해야 한다. 물론 숙면을 취하는 것과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다.

찬바람이나 찬 기운에 접촉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찬 기운을 받는 것을 주의하고, 특히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신 뒤에 밖을 돌아다니지 않아야 한다. 물론 추운 날씨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감기, 대상포진, 중이염을 비롯한 감염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 질환을 앓은 뒤나 만성질병을 앓는 중에 안면마비가 오기 쉬우므로 조리를 잘 해야 한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